

## 2010년 대동제, 'Re;design'

### 주점을 줄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시도

2010년 대동제가 오는 18일 시작해 20일까지 학내 곳곳에서 진행된다.

이번 대동제는 행사의 첫 날을 '무알콜데이'로 지정하고 학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과 볼거리들을 준비했다. 축제가 이어지는 3일 동안 교내에선 슈퍼스타H, 한성커피플러강전, 3on3 농구대회 등의 큰 행사와 함께 자동차 그래피티, 소원풍선, 손도장 벽화, 에어바운스, 낙산가요제, 동아리 행사, DJ 파티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된다. 김정현(산공 3) 부총학생회장은 "학우들이 무엇을 원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이전과 다른 새로운 대동제를 준비했다"며 "많은 모험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시도가 반박 시도로 그치지 추후에도 이어질지는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가 판가름할 것"이라고 전했다.

#### ▲ 무알콜데이

대동제 첫 날은 무알콜데이이다. 운동장에는 주점 대신 '에어바운스'가 들어선다. 높이 11m의 대형 미끄럼틀, 로데오 경기, 서핑 경기 등이 설치된다. 김정현 부총학생회장은 "대동제를 준비하며 '우리 대동제는 볼 게 없다. 무대도 늘 똑같고 낮에는 축제를 분위기도 나지 않고 오후엔 주점밖에 없다'는 학생들의 인식을 많이 느꼈고 이를 바꿔보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며 무알콜데이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

는 "주점을 하루 줄이는 대신 학생들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놀이공원 분위기가 나는 에어바운스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학교 대동제에서 시도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학우들도 신선하게 느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 더욱 풍부해진 무대 행사

슈퍼스타H, 한성커피플러강전, 3on3 농구대회 등의 행사가 대동제의 중앙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다. 한성커피플러강전에는 50만원 상당의 주얼리를 증정하는 등 상품도 걸려있다. 왕산악, N.O.D, TRIAX 등 7개 팀이 준비하는 동아리 무대공연과 낙산가요제 등의 공연도 각각 18, 19일에 이어진다. 또한 행사 마지막 날인 20일 밤에는 가수공연과 DJ 파티 등이 계획돼 있다.

#### ▲ 다양한 보조 프로그램

축제 3일 내내 수시로 진행되는 다양한 보조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다. 행사 첫 날인 18일부터 3일간 '소원 풍선'과 '손도장 벽화' 이벤트가 미래관 앞에서 수시로 진행된다. 소원 풍선은 창의관과 미래관 사이의 통로에 학생들의 소원을 적은 메모를 넣은 풍선들을 공중에 띄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축제 마지막 날에 약 1천여 개의



▲ 작년 대동제 마지막날 초대가수 '다이나믹 듀오'의 공연 모습

풍선을 한 번에 공중으로 날려 보내는 장면을 연출할 계획이다. 손도장 벽화 역시 창의관 앞 학교 입구에 설치할 판에 학생들의 손도장을 찍어 마지막 날까지 전시한다. 자동차 그래피티는 18일부터 운동장에서 진행된다. 4개 단대를 상징하는 그래피티(용/용) 페차 4대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그래피티를 할 수 있다. 이는 축제 마지막 날 페차

부수기 행사에 사용된다. 김정현 부총학생회장은 "그래피티가 모두 완성되면 각 단대별 특징이 잘 드러나 그 자체로도 멋진 볼거리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야구부의 구속측정, 각 분과의 미술쇼, 게임, 동아리 별 버스 등 각 동아리의 전시 및 행사도 학내 곳곳에서 이루어진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 면접 대비는 무인셀프면접기로

### "혼자서도 피드백 가능해"

취업 면접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내에 무인셀프면접기(이하 면접기)가 설치됐다. 오순영(취업지원팀) 팀원은 "사용자는 면접기를 통해 본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자신의 행동이나 습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면접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면접기는 실제 면접 상황처럼 질문을 실시간으로 음성으로 말해주고, 면접 상황도 녹화해 보여준다. 또한 오순영 팀원은 "녹화된 자료를 가지고 잡카메라에 가면 상주 직원과 외부 전문가들, 금리를 통해 본인의

면접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며 "온라인 취업술수련을 이용한 무료 피드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면접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인성, 기본, 회사관심도, 자질, 교양, 직무, 영어, 기타 등의 선택지를 통해 질문을 고를 수 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회사를 선택해 질문에 따른 차별화된 질문을 받을 수 있다. 덧붙여 질문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질문추가를 선택하고, 질문을 그 자리에서 기입하거나 혹은 미리 텍스트에 저장해 놓고 무인셀프면접기에 USB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김민석(역사문화 3) 학생은 "면접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면 면접에서 본인의 행동에 대해 피드백을 받을 수 없는데 면접기로 혼자서도 피드백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면접을 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미리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알 수 있어 면접 준비에 좋을 것 같다"고 면접기를 체험한 소감을 말했다.

무인셀프면접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우촌관 3층 종합행정실 내 316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박형진 기자 phsitlan@hansung.ac.kr

## 제 35회 낙산가요제, 참가자 작년보다 2배 늘어

올해로 36회를 맞는 우리학교 낙산가요제가 지난해에 비해 예선 참가팀이 2배 이상으로 늘어 20개의 팀이 예선을 치렀다. 지난 8-9일, 고려대, 중앙대, 인하대 등 다양한 학교에서 낙산가요제 예선을 위해 우리학교 HBS 방송국 스튜디오를 찾았다. 전현수(경제 3)실무국장은 "지난해보다 흥보가 잘 이루어져 다양한 대학 학생들이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년 낙산가요제에서 수상한 고려대와 명지대 팀 등은 올해도 다시 낙산가요제를 찾았다. 그러나 정작 행사를 주최하는 우리 대학에서 참여가

적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우리대학에서는 예선 참가 20개 팀 중 단 한 팀만이 참가했다.

방송국의 대표적인 행사인 낙산가요제는 대학생들의 순수 창작곡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전현수 실무국장은 "처음에 자작곡인줄 모르고 유명 드라마 OST 등을 가져온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며 "낙산가요제는 음악을 사랑하는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곡을 직접 만들어 무대에 서는 것에 그 특별함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작년과 다른 심사위원이 선정되었는데 신지연(정시 3) 부국

장은 "심사위원에 변화가 있어 작년 심사와 방향이 약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낙산가요제는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방법으로 예선을 진행해 선정된 10팀이 본선에 진출한다. 이 10개 팀 중 가요제 무대에서 현장심사를 통해 우수한 세 팀이 최종 선정된다. 상금은 대상 100만원,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이다. 낙산가요제는 대동제 이틀째인 19일 오후 6시 운동장 무대에서 열린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 '저희 벌써 졸업해요' 지난 12일, 미래관 앞 잔디밭에서 졸업을 앞둔 지식정보학부 4학년들이 교수들과 함께 졸업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김동규 기자 donggyu@hansung.ac.kr

### 제4회 한성대신문사 사진공모전

기간 : 2010년 5월 13일~5월20일  
대상 : 한성대학교 전 구성원(학부, 대학원, 교수 및 교직원)  
주제 : 자유(주제의 제약이 없음)  
제출형식 : 8x10크기로 인쇄해 제출  
제출장소 : 학생회관 제법관(우리은행맞은편 건물 2층) 한성대신문사  
발표 : 한성대신문 439호(6월 7일 발행)  
상금 : 금상(1명)-상장 및 상금 30만원  
은상(1명)-상장 및 상금 20만원  
동상(1명)-상장 및 상금 10만원  
문의 : 한성대학교신문사 (중문 앞 학생별관 우체국 건물 2층)  
02) 760-4186  
kmh77@hansung.ac.kr

## '대학과 지성', 학생들의 극과 극 반응'

### 다양한 주제에 대한 '흥미' 혹은 '부담감'

지난 2학기부터 새롭게 바뀐 '대학과 지성' 강의가 학생들에게 극과 극의 반응으로 엮이고 있다. '대학과 지성'은 신입생 필수교양 과목으로서 지난해 2학기부터 학사지원팀에서 교양과목 담당 부서가 바뀌어 수업진행을 맡게 되어 많은 변화를 단행하였다. 교재를 사용하며 외부강사 대신 우리대학 교수들이 강의를 진행하는 점이 대표적이다. 일련번호가 매겨진 확인증을 발급해 지각, 결석 등의 출석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예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의 강의 역시, 지난 2학기와 같은 틀

로 유지되고 있다. 박성민(교양과)교수는 "매주 유명 강사를 초빙해 이벤트 형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던 예전과 달리 대학생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양 입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주제를 접해보게 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수업은 각 과 교수의 글을 모아 엮어 교재로 사용하며 저자인 교수가 직접 그 내용을 강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의 내용은 인문분야부터 사회, 과학,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그런데 새로워진 수업에 대한 학생

들의 의견이 다양하다. 작년에 편입학을 한 심보현(무용 4)학생은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포괄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 즐겁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강의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다. 예술대학의 한 신입생은 "매 주마다 교재 안에서 정해진 분량을 요약하고 감상을 자필로 써야 해 부담스럽다. 사실 책을 그대로 베껴 오기만 하는 학생도 많다"며 신입생 입장에서 느끼는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박성민 교수는 "학생들이 관심 있고 잘 하는 분야가 아닐 때 내용이 어려워졌다고 느끼는 것 같다. 또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하도록 하는데 과제의 의의가 있다. 공부 량도 적고 시험도 없으므로 신입생에게 이 과제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00여명의 신입생이 한 번에 듣는 대형 강의와 강사와 학생들의 거리가 멀고 참여하기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분반을 하면 강의 내용을 한 교수가 의도 그대로 전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직접강의를 하게 되었다. 저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강의의 장점을 학생들이 잘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 끊이지 않는 학생회비 논란

# ‘학생’ 회비인가, ‘학생회’ 비인가?

지난 달 21일 낙산의 메아리(이하 낙메)에 게시된 글을 기점으로 학생회비에 관한 문제가 공론화되었다. 한 과에서 학생회비 미납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시작된 이 문제를 통해 학생과 학생회 간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 ▲ 학생: “적지 않은 금액에 불명백한 사용처가 문제”

많은 학생들에게 학생회비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적지 않은 금액에 학생회비 사용처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상희(컴공 3) 학생은 “1학년 때 내라고 해서 내긴 했지만 학생회비를 내서 실질적으로 돌아온다고 느끼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생회비가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영의 3학년 남학생은 “몇 년 전 학생회장님이 지인이 학생회비가 남았다며 회식을 하자고 하는 걸 경험한 적 있다. 차라리 아예 학생회비를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학생회에서 삼겹살 파티 같은 걸 한다고 해도 아는 친구가 없으면 안 가게 되지 않나. 돈만 내고

혜택도 없고 사용처도 불분명하면 그 학생회를 위해 내 돈을 내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며 학생회비에 대한 불신을 토로했다.

### ▲ 학생회: “학생회의 일을 모르면 이해하기 힘든 문제”

학생회는 학생회 활동에 관심이 없으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돈이 쓰이는지 내부사정에 대해 잘 알기 힘들고 이는 결국 학생회에 대한 ‘오해’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한 전 학생회 간부는 “신입생 환영회, 연합MT, 답사, 과방 등의 행사를 치르다보면 돈이 정말 백단위로 들어간다. 그리고 우리 과를 위해서 쓰이는 돈인데 누군 내고 누군은 안내면 학생회를 이끌어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학생회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학과도 있다. 역사문화학부는 학과실에 모든 학생회비 사용내역을 자바로 분기마다 공개하고 있다. 이재영(역사 4) 역사문화학부 학생회장은 “학생회비에 대해 궁금해 하는 학생이 많아 개강총회 때만 하던 것을 투

명하게 공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 학생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는 학생회비 사용내역

학생회비 문제는 각 과마다 전년도 이월금, 행사의 수와 성격에 따라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생회비 사용내역의 투명성 역시 각 과 학생회의 양심에 전적으로 맡겨지고 있다. 이명영의 전 학생회 간부는 “솔직히 학생회비 문제는 각 과 학생회장의 역량에 달린 문제다. 나쁘게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위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는 “각종 행사마다 뒤편이 있으니 실제로 술 마시는데 돈이 들긴 한다. 오는 애들만 온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자율적인 행사에 한해서 좋아하면 서 오라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이러니 학생들의 불신이 깊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심지어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해도 그 내역이 학생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학생들은 결국 학생회에 등을 돌리고 만다. 이명영의 2학년 학

생은 “공지를 통해 학생회비의 사용처를 알게 되었지만 학생들의 복지에 쓰이는 돈보다 노는데 쓰이는 돈이 많은 게 확연히 아깝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 ▲ 서로에게 무관심한 학생들

실제 인터뷰한 많은 학생들은 학생회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명영의 한 학생은 “학생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실제로 별 관심이 없다. 학생회비 역시 내고 나면 무관심해진다.”고 했다. 학생회 활동을 하는 학생들도 공감하는 내용이다. 이명영의 전 학생회 간부는 “공개하는 게 원치 않음으로써 학생들의 생각을 알기 힘들어 학생이 없어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학생회와 학생간의 간극이 갈수록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중(인태리4)이대 학생회장장은 “이번 일로 학생들의 생각을 알게 되었고 학과 특성에 맞게 학생회에서 좋은 방안을 모색할 계기가 되었다.”며 학생회와 학생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전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 학술정보관 ‘저자와의 만남’ 열려

## 정재승 KAIST교수의 『크로스』

지난 3일 미래관 DLC에서 학술정보관이 주최하는 ‘저자와의 만남’이 열렸다. 올해 ‘저자와의 만남’은 정재승 KAIST 교수의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간의 조화’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정재승 교수는 책에서와 같이 건축, 선거, 경제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와 관련된 예를 들면서 강연을 이끌었다. 『크로스』는 ‘개그콘서트’, ‘스타벅스’ 등 우리 사회의 이슈들을

정재승·진중권 교수가 각자의 전공 분야인 뇌공학과 미학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한 책이다.

정재승 교수는 “카이스트 재학 당시에는 전공과목만큼 타 과의 과목을 많이 들어서 ‘신기한 학생’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그때의 산만함이 다양한 연구 주제를 던져준다”며 여러 학문을 통해 넓어진 시야가 전공과목을 공부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연의 말미에서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학문적 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을 이해하려다 여러 학문을 통하여 ‘완전한 이해’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도세리스트를 만들어 ‘꼭 이 것만은 읽고 사회에 나간다’라고 생각하되, 리스트가 분과 별로 편중되지 않게 하라”고 학생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윤민기 기자 daja@hansung.ac.kr

## 한성 디지털탈렌트 장학 내용 변경돼

한성 디지털탈렌트 장학 내용 중 예 술대학(이하 예대) 배정인원은 변경되었다. 개정된 인원은 1학기에 주간 4명·야간 2명, 2학기에 주간 4명·야간 2명, 2학기에 주간 6명·야간 2명이다.

이는 기존 1학기 주·야간 각각 3명, 2학기 주·야간 각각 4명에서 전체 인원은 동일하지만 주·야간 인원

만 변경된 것이다. 개정된 인원은 1학기는 주간 4명·야간 2명, 2학기는 주간 6명·야간 2명이다. 배정인원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전민우(학부지원팀) 팀원은 “현재 예대 중 야간 학과를 운영하는 곳이 의생활학부가 유일하기 때문에 야간 학생의 배당인원을 줄여 실질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출 서류 항목 중 기타 자격증이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자격증’이라고 조건이 붙음에 따라 이전보다 조건이 강화되었다.

이는 2010년 2학기부터 적용되며 7월 초 접수 예정이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 우리학교 창업지원단 출범해

지난 4월 28일, 미래관 DLC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우리학교 산 학협력단에서 주최하는 창업지원단 발대식이 개최됐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대학생 예비창업자 발굴을 위해 출범한 창업지원단은 이번 발대식에서 ‘대학 캠퍼스를 성공창업의 요람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내 창업분위기 조성 및 창업인프라구축을 목표로 내세웠다.

올해 처음 정부에서 실시하는 ‘2010년 창업지원단 지원사업’에는 서울지역의 연세대와 우리학교를 포함하여 전국 15개 대학이 선정됐다. 각 학교는 3개의 창업 강좌와 5개의 창업 동아리 설치를 목표로 7천~8천 만원까지 창업지원금을 지원받는다. 이에 우리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창업경진대회에 15개 아이템을 출품하

고 5건 이상의 대학생 창업사업제를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기태(컴퓨터공학과)산학협력단장은 “정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발맞추어 이번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창원(행정학과)기획협력처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대학에서 취업을 강조해도 취업률은 큰 변화가 없었다”며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한성대생 창업지원의 요람이 되는 대학으로 만들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 참석한 김중호(산공 3)학생은 “평소 창업 소모임(아토즈)을 통해 창업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앞으로 창업지원단의 활동을 통해 창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동규 기자 donggyu@hansung.ac.kr

## 동정란

이중수(행정학과)교수 이 교수는 5월 6일 서울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황진수(행정학과)교수 황 교수는 SSCI 등재 저널인 Asian Women에 「Analysis of participation by female seniors in the Korean job. Creation program for the Elderly」의 논문을 수록, 출판하였다.

권해수(행정학과)교수 권 교수는 5월 7일(금) 한국행정학회 비평행정연구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전원식(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 전공)교수 전 교수는 그 동안 사회봉사와 미술 활동의 업적으로 국내 미술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대학신문 ‘파워리더’로 선정되었다.

문찬(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 전공)교수 문 교수는 서울특별시 ‘세계디자인수도 서울 2010’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서울디자인한마당 기획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김형수(산업경영공학)교수 김 교수는 6월 KAIST에서 개최되는 지식경영학회 춘계대회에서 기획위원장과 객석지식 트랙 좌장을 맡았다.

## 밤새 남아 있기에 어두운 우리학교

### 조명 시설 확대 필요해

밤늦게까지 교내에 남아 있는 학생들을 위한 조명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학교는 자정 12시까지만 점등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야간학부인 최재우(경영 3)학생은 “10시 반에 수업이 끝나 집에 가기 위해 나와 보면 학교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다”며 “야간 학생들을 위해 조명 시설을 확대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오윤권(시설지원팀)담당자는 “작년에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돼 지난 12월 말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연구동 옆 계단에 조명 시설을 설치했다”며 “야간학생들의 교내 출입에 크게 불편한 점은 없을 것”



▲늦은 시간 어두운 진리관 앞

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새로 조명을 설치한 곳에 불을 밝혀 놓지 않아 현장 관리가 필요하다. 농구 코트 옆으로 공학관에 올라가는 언덕길은 작년에 조명을 설치했지만 항상 켜져 있는 것은 아니다. 탐구관 뒤 공간과 진리관·학송관 사이의 길은 가로등이 없어 여전히 어두웠다.

오윤권 담당자는 “밤새 학교에 남아 있는 소수의 학생들은 대부분 졸업작품이나 과제를 위해 남아 있는데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 추가로 가로등을 켜기에는 점등의 비용 문제와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사고의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이번 학생들은 대부분 한 건물 안에서만 이동하고 밖에 나가지 않아 이들을 위한 추가 조명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소수의 학생만이 남아 있을 때는 추가 점등을 하는 것이 힘들지만 많은 학생들이 교내에 밤늦게까지 남아 있고 추가 점등을 바라는 학생들의 요구가 있다면 다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형신 기자 phsllian@hansung.ac.kr

## 동아리 프로모션 공모전 진행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가 주최하는 동아리 학술 및 이벤트 프로모션 공모전에 N.O.D, 극에출연구회, DCNM, 한성타이포 4개 동아리가 선정됐다.

동연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동아리 학술 및 이벤트 프로모션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는 동아리를 대상으로 한 활동 공모전으로서 각 동아리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각종 행사를 지원하는 제도다. 각 동아리에서 동아리의 개성이 드러나는 학술행사, 전시행사, 이벤트 등을 계획

해 기획서를 제출하면 동연에서 동아리의 심도있는 활동 및 추진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사 하고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하는 등 2차에 걸쳐 기획성이 우수한 동아리를 선정한다. 작년의 경우 N.O.D(댄스동아리)가 타 대학과의 댄스 배틀 행사를 추진해 18개 대학 댄스 팀이 참가한 배틀을 벌여 공모전에 선정된 바 있다.

성스런(기계 3)동년 회장은 “이번 학기에 3개의 동아리가 배출하면서 동아리 활동이 예전과 달리 침체했

다. 이를 탈피하고 동아리들의 개성 있는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이 제도의 궁극적 목표”라며 동아리 프로모션 공모전의 취지를 밝혔다.

기획서 제출 후 1·2차 심사와 투표를 통과한 최종 4개 팀은 최우수·우수·개성·인기팀으로 가려져 기획서를 실천하기 위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최우수팀 40만원, 우수팀 30만원, 개성팀 및 인기팀은 각각 25만원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 우리학교 장학 및 발전기금 행렬 이어져

### 우리학교 노조, 동문직원 장학회, 대학원 총동문회 등

지난 4월 28일 총장실에서 우리학교 교직원 노동조합(이하 조총련)이 장학금 5억원 기부약정서 전달식을 가졌다. 조총련 기부장은 “앞으로 매년 2천여 만원, 총 5억원의 ‘노동조합 장학금’을 적립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생활비와 장학금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27일에는 동문교직원 장학회(회장 장영우)에서 1억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23일 대학원 총동문회에서 총 5억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하기로 하고 약

정식을 맺었다. 이와 별도로 광석학 대학원 총동문회장은 학교 연구원 건립비용으로 1억 원을 기부했다. 한성대 대학원 관계자들도 발전기금을 기증했다. 기부금을 낸 한성대 대학원 관계자들은 다음과 같다.▲박순만(고문) 5백만원▲김태식(고문) 3백만원▲박기성(발전추진위원장) 5백만원▲이경구(수석부회장) 2백만원▲황병택(수석부회장) 3백만원▲구형희(수석부회장) 2백만원▲한영철(사무국장) 1백만원

이성미 기자 sangmi@hansung.ac.kr

## ‘BOOK FAIR’ 열려, 총 437권 판매돼

네브래스카 주립대학교 이상문 석좌교수의 기증 도서를 판매하는 ‘BOOK FAIR’가 지난 4일부터 10일 사이, 나흘간 학술정보관 연속간행물실에서 열렸다.

이번 ‘BOOK FAIR’는 우리학교 정승환(경영학부)교수의 박사학위 지도교수로 인연을 맺은 이상문 교수가 네브래스카 주립대학교의 졸업생들이 교재로 쓰던 책을 회수하여 우리학교에 기증한 427종, 1만1천603권의 책을 학술자료팀의 정리과정을 거쳐 권당 1천원의 가격

으로 판매하는 행사였다.

‘BOOK FAIR’를 주최한 이상민(학술자료팀)팀장은 “처음에는 기증도서의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학교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좋은 책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BOOK FAIR’에서는 총 84명에게 437권이 판매되었으며, 수익금 433만7천원은 도서구입기금으로 적립된다.

김동규 기자 donggyu@hansung.ac.kr

# 지금의 나를 지우고

유수의 석학들로 이루어진 교수진이 실용주의 커리큘럼으로 성공을 가르치는 한성대학교 대학원 - 국내 최고 수준의 첨단 학술정보관을 비롯해 타 대학과 차별화된 보다 큰 장학금 혜택도 함께 누리는 한성대학교 대학원과 함께 인생의 페이지에 더 큰 내일을 쓰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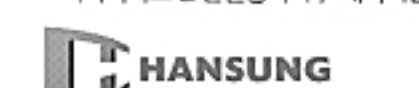


# 더 큰 내일을 써라!

## 2010학년도 후기 한성대학교 대학원 신입생·편입생 모집

1. 일반대학원(주간)	문의전화 (02)760-4271
<b>박사과정</b> ▶ 한국어문학과 / 국어학, 국문학, 한국어교육, 문화콘텐츠 ▶ 영어영문학과 / 영문학, 영어학 ▶ 사학과 /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 문헌정보학과 / 문헌정보학 ▶ 경영학과 / 인사·조직관리, 재무관리, 서비스경영관리, 마케팅, 회계학, 경영정보 ▶ 행정학과(모집없음) / 행정학, 정책학 ▶ 경제·무용신학과 / 경제학, 부동신경제학(부동신학-모집없음) ▶ 무역학과 / 국제무역학, 국제경영학 ▶ 산업시스템공학과 / 정보기술, 생산경영, 품질경영, 안전및인간공학 ▶ 정보컴퓨터공학과 / 멀티미디어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시스템공학 ▶ 미디어디자인학과 / 시각·영상커뮤니케이션,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 인터랙티브·디자인이론 ▶ 지식서비스 & 컨설팅학과 / 매니지먼트컨설팅, 컨버전스컨설팅	<b>석사과정</b> ▶ 한국어문학과 / 한국어문학, 문화콘텐츠, 한국어교육 ▶ 사학과 /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 영미문화학과 / 영어학, 영미문화콘텐츠, 영어교육 ▶ 문헌정보학과 / 문헌정보학, 기록관리학 ▶ 무역학과 / 국제경제, 국제경영, 국제무역실무 ▶ 경영학과 / 인사·조직관리, 재무관리, 서비스경영관리, 마케팅, 회계학, 경영정보 ▶ 행정학과 / 행정학, 정책학 ▶ 경제학과 / 경제학, 부동신경제학 ▶ 산업시스템공학과 / 산업시스템공학 ▶ 멀티미디어공학과 / 멀티미디어공학 ▶ 컴퓨터공학과 / 컴퓨터공학 ▶ 정보통신공학과 / 정보통신공학 ▶ 정보시스템공학과 / 정보시스템공학 ▶ 기계시스템공학과 / 기계시스템공학

2. 특수대학원(야간)	문의전화 하단 참조
<b>경향대학원(석사)</b> 경영학과 / 경영관리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 호텔경영, 관광경영, 외식경영 디지털미디어(비즈니스학과) / 디지털미디어(비즈니스학과) <b>행정대학원(석사)</b> 행정학과 / 행정학, 정책학 사회복지학과 / 사회복지, 노인복지, 실버산업, 사회복지상담 경찰행정학과 / 경찰행정학 중독재활학과 / 치료재활, 중독연구 <b>예술대학원(석사)</b> 패션디자인(기원학과) / 패션디자인, 패션마케팅, 패션프로모션 뷰티예술학과 / 분장예술, 헤어디자인, 뷰티에스테틱, 뷰티소재학 국방과학대학원(석사) 안보전략학과 / 국제안보, 국방정책, 군사전략 국방경영학과 / 국방경영 국방M&S학과 / 국방M&S학 지식서비스 & 컨설팅대학원(석사) 지식서비스 & 컨설팅학과 / 매니지먼트컨설팅, 컨버전스컨설팅	(02)760-5844 부동신대학원(석사) / 부동신투자금융전공, 부동신평가전공, (02)760-5876 부동신개발및관리전공, 지적정보지식관리전공, 통상지리전공 교육대학원(석사) / 교육행정전공, 상담심리전공, 유아교육전공, (02)760-5878 국어교육전공, 역사교육전공, 영어교육전공 (02)760-5845 원서접수 및 발표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10. 5. 17(월)~5. 25(화) (토, 공휴일 제외 단 인터넷 원서접수 시 공휴일도 가능) ● 접수 수취 ▶ 본교 대학원 2층 행정실 ● 전형 일시 ▶ 2010. 5. 28(토), 10:00시~ ● 전형 방법 ▶ 서류전형/면접(단, 회화과/미디어디자인학과는 포트폴리오 지원) ● 합격자 발표 ▶ 2010. 6. 16(수) 14:00시 이후 ● 제출 서류 ▶ 본교 홈페이지 참조 http://gs.hansung.ac.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한성대학교 대학원 136-792 서울 성북구 성선동 2가 389 http://gs.hansung.ac.kr

# 120주년 세계노동절 MB 정부규탄 목소리 높아

In the field

## 시국 이야기로 열리는 촛불집회 '강남촛불'

### "타임오프안은 노조활동 말살 정책"

### "청소년의 1시간 노동은 햄버거 하나 값도 못해"

지난 1일 여의도 문화공원에서 열린 '120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범국민대회'에서 1만 5천명의 시민들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며 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는 노동자, 국회의원, 일반 시민, 대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나지수(한신대 1)씨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다"며 "이러한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자 이곳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

TROUBLE MAKER의 일원으로 행사에 참석한 전기화(서울대 2)씨는 "학교에서 행동단을 꾸려 20명의 학생들과 함께 노동절 행사에 왔다"며 "우리는 비정규직 철폐, 노조 탄압 봉쇄, 해고 및 실업에 반대한다는 세 가지 모토로 활동 중이다"고 말했다.

무대에 올라간 김영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노조 활동을 하루 일꾼 새벽 3시에 민주노총 사람을 빼고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타임오프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국채화, 세계화를 외치



▲ 지난 1일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노동절에 모인 사람들과 (왼쪽) 아르바이트생의 현실을 풍자한 퍼포먼스(오른쪽) 사진이다.



는 정부가 오히려 그에 역행하는 일을 저치고 있다"고 현 정부에 대해 비판했다.

행사를 보고 있던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우부리 씨도 "정부에서는 노조전임자의 수를 전체 노조의 5%만 인정해서 이들에게만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노조 활동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통과된 노조 임금법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무대에 올라온 한대련의 대표는 "대학생들은 이번 노동절에 참석할 학생들을 모으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다"며 "이번 노동절을 계기로 노동자, 대학생이 하나가 되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MB 정부의 억압에도 노동자 동지들이 결의를 다지기 위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을 보니 축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어려운 시국을 단결로 헤쳐나가기"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절 행사에는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도 울려 퍼졌다. 대표적으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이하 네투)에서 펼친 퍼포먼스가 있다. 그들은 한 소녀가 괴물에게 먹히는 모습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통해 청소년들이 처한 노동환경을 고발했다.

네투의 활동가 '한날' (네투워크 활동가)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한 시간을 일해도 자기가 팔고 있는 햄버거 값

도 벌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퍼포먼스를 기획하게 됐다"며 "청소년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최저임금도 못 받은 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도 엄연한 노동임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출판노동자협회의 김진원씨는 "MB 정부는 외주 편집자, 외주 디자이너 등 외주 노동자들의 대우와 실태에 전혀 모르고 있다"며 출판노동자들의 복지 확대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성소수자들을 위한 차별없는 일터 만들기와 장애인 복지 확대, 여성인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이들도 노동절에 참여해 MB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 지난 12일 강남역 6번 출구에서 '강남촛불'의 카페회원들이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

강남역 6번 출구 외환은행 앞에서는 시국 이야기를 주제로 '강남촛불'이라 불리는 시민들의 촛불집회가 700여 일째 이어져 가고 있다. 강남촛불은 온라인 카페 강남촛불 회원들의 자발적 진행으로 매일 오후 7-9시까지 열리고 있다.

지난 12일 열린 촛불집회는 MBC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정부의 MBC에 대한 노골적 간섭과 업무기밀 사정 사퇴, 방송통신위원회의 장악, 미디어법 날치기 등의 문제를 들며 MBC의 파업의 정당함을 주장했다.

한 여성참가자는 "MBC는 언론장악에 맞서 싸우는 살아있는 언론이다"며 "이번 촛불집회는 MBC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열렸다"고 촛불 집회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사건을 계속

터뜨려다 보니 힘든지 모르고 계속해서 촛불 집회에 나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카오루' (강남촛불 네투임씨)는 "예전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정치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광우병 쇠고기 문제가 터지면서 촛불 집회에 참여하게 됐다"며 "용산참사, 미디어 악법 등의 문제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700여 일째 집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 '브라이언' (카페 네투임씨)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학업과 취업 준비로 바쁜 활동을 하는 건 알지만, 적어도 신문의 1면 뉴스를 보면서 좀 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며 "6.2지방선거에서 투표도 꼭 해주길 바란다"고 사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사회부

### 사회문제로 通하다

## 황금만능주의와 자본의 시대

최근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그랬지만, 얼마 전 그리스발 유럽 경제위기에 대한 신호가 나타나자, 금값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다. 금은 달러나 유로, 위안 등 그 어떤 단위의 가치보다도 우선한다는 점에서 객관적 가치의 지표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금은 물질적 가치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하지만 금이 갖고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의 물질성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금을 욕망하는 순간이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황금만능주의'라고 부른다. 이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직접 금을 찾아 떠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금으로 표현되는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미국에서 서부로 진출하면서 금을 채취하는 일이 많았고, 한국에서도 20세기 초에 금을 쫓는 세태가 있었다고 한다.

정작 문제는 후자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 날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황금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계속 있어왔다. 그렇

다면 과거와 지금의 황금만능주의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과거에는 정신(마음)과 물질의 구분 속에서 전자보다는 후자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서 황금만능주의를 언급한 것이었다면, 지금은 그러한 구분 자체도 사라졌으며 물질 그 자체가 이미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 시대의 문제는 단순히 물질(황금)에 대한 탐욕의 문제를 넘어선다. 그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본'의 문제다. '돈'과 '자본'은 다르다. 돈은 인간사회에서 소통하고 관계 맺고 살아가는 일종의 도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본은 사회적 역할과는 별개로 그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괴물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먹기에 따라 돈에 대한 통제나 지배는 가능할 수 있지만 자본에 대한 통제는 철저히 불가능하다.

최근 자본주의 위기를 논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투기자본이나 금융자본 등의 용어에서 나타나는 '자본'은 그러한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겠다는 의지나 돈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본 그 자체의 탐욕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얼굴은 주식과 펀드뿐만 아니라 온갖 다양한 금융상품의 이름으로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자본의 교묘한 논리에 속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미 우리는 햇속 깊은 곳까지 자본의 논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국사회는 집, 그 중에서도 아파트에 대한 욕망이 절대적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 애쓰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부동산 투기'라는 이름으로 비판적 시선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모습은 온데 간데 없다. 부동산 투기는 '현명한 투자' 혹은 '제테크'라는 이름으로 탈바꿈했다. 한국인은 먹고, 자고, 입는 '의식주'에는 만족할 줄 모른다.

돈이 필요조건과 충분조건 사이에서 움직

이는 것이라면 자본은 필요조건을 넘어 충분조건을 무한성을 획득한다. 한국인의 일상적 욕망이 그러한 자본의 욕망을 그대로 답았다. 현재의 가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잘 먹고 잘 살려면 무엇이든 많이 소유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20세기 후반까지 존재했던, 그리고 비판했던 근대적 의미의 '황금만능주의'는 인간의 의지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어도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자 과제였다. 하지만 21세기에 유행하는 신자유주의와 금융자본주의의 결합은 단순히 황금만능주의를 넘어 인간의 모든 영역을 자본의 이름으로 지배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몸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자본의 기쁨때를 벗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 지구 곳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자본의 더러운 얼굴이다. 자본은 멈출 줄 모르는 탐욕을 드러낸 결과, 이제 서서히 구토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는 황금만능주의, 즉 자본의 시대를 넘어서는 '인간의 시대'를 펼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권경우 문화평론가

### 낙산만평

류연수(애니제움 3)

또 하나의 가족  
SAMS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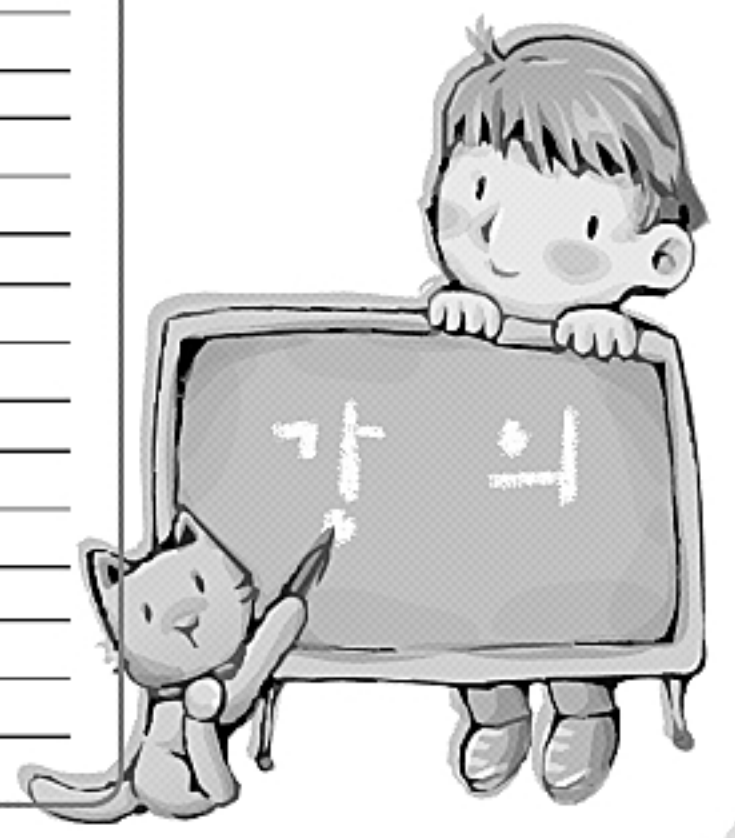
## 진로 집단 프로그램 (외부강사 초청)

- 강사(고지영) 대표약력**
- 現 인크루트(주) 수석컨설턴트
  - 現 백석예술대학 겸임교수(담당교과목 : 직업과 진로)
  - 前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센터장 (진로 및 취업상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등)
  - 前 노동부 청년취업지도 프로그램(Cap+), 취업희망프로그램 진행 및 운영등

- ★ 프로그램의 개요**
- 진행일시 : 2010년 5월 24(월)~6월 28(월) (5회 프로그램) (시험기간인 6월 14(월) 제외) ★매주 월요일 오후 3:00~5:50
  - 모집인원 : 12명 (선착순 마감) ★ 5회 모두 참석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모집
  - 신청방법 : 내방(Job Cafe) 및 전화(760-5973) ★이름, 학과, 학년, 연락처 말해주세요!
  - 진행장소 : 미래관 지하층 회의실(잉글리시 라운지 맞은편에 위치)
  - 참가대상 : 전학년, 졸업생

**★ 프로그램 일정**

1회기 5/24(월) 15:00~17:50	1. 내안에( ) 있다	빛장영기 교류분석	1시간 30분 1시간 30분
2회기 5/31(월) 15:00~17:50	2. 소통의 달인	자존감 일치적대화법	1시간 30분 1시간 30분
3회기 6/7(월) 15:00~17:50	3. 일을 왜 하는데?	생애가치 소명 의식	1시간 30분 1시간 30분
4회기 6/21(월) 15:00~17:50	4. 나는 멋진 사람입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모의면접	1시간 30분 1시간 30분
5회기 6/28(월) 15:00~17:50	5. 시작이다	진로내비게이션 시동걸기	1시간 30분 1시간 30분



사설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대학인

올 봄은 참으로 일찍이 다가왔다. 잠시 봄기운이 느껴지다가는 또 다시 뱃속 깊숙이 냉기가 스며드는 변덕스러운 날씨의 연속이었다. 봄날의 눈이 더 이상 서설(雪)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흔하게 내리던 눈발은 보던 정말 봄이 오는 것이 맞는지 의심마저 느껴질 정도였다. 날씨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국내의 소식들은 어깨를 더 움츠리게 만들기에 족했다. 정말이지 '春來不似春(춘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봄이었다.

그렇지만 자연의 법칙이란 참으로 오묘하다. 따사로운 봄날에 대한 기대를 가지기도 힘들다고 느낄 만큼 계속되는 이상 기후에 지쳐 있다가 어느 순간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봄은 어느새 우리 옆에 다가와 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지만, 너무나 긴 추위와 기다림 속에 다가왔기에 이번 봄에 대한 느낌은 각별하다.

가끔은 삶의 무게가 느껴지며 지치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에 입학하면 모든 걱정이 사라질 거라는 기대를 가졌지만 막상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새로운 차원의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정해진 교육과

정 내에서 그저 공부만 하면 되면 고등학교 때와 달리 대학에서는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따라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결코 만만하지는 않다. 열심히 하다가도 과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회의가 들기도 하고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이럴 때면 다시 한번 이 봄, 자연의 모습을 돌아보자. 그리고 그 속에서 그저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는 식의 위안이 아니라, 겨울의 추위가 채 가지지 않은 자리에서 꽃을 피우고 새싹을 만들어 내는 자연의 생명력을 느껴보자. 봄 햇살 속에서 자연이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은 길고 춥던 겨울이 있었고, 그 계절 동안 그저 어려움을 견뎌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한 노력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실의 어려움을 또 다른 도약의 준비기로 여기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과정이야말로 젊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일 학기, 아름다운 젊음의 열정이 낙산 캠퍼스를 가득 채우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운 정치

대학생 혹은 20대들은 정치를 어떻게 생각 할까. 아마 나의 세계와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강할 것이다. 나 하나 선거에 참여한다고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하다보니 정치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20대들은 정치에만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당장 취업 준비를 해야 하는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나, 임금문제 등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비록 자신이 내일 바로 처할지도 모르는 상황일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예전에는 운동권들의 집합체로 볼 수 있었던 학생회조차도 요즘에는 '운동권'이 아닌 '학생권'을 표방하는 학생회로 변화 되었다. 이런 학생회에서 정치를 관심을 갖기 보다는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을 들어주거나 학생복지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럼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정치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까. 무엇보다도 정치가 바로 나의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대학생들이 지자체 의원 등의 선거운동도 활발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학생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하다.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그렇처럼 투표, 선거 운동 등 직접적으로 정치활동

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것이 힘들다면 사회나 정치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만으로도 간접적인 정치참여가 될 수 있다.

실제 대부분의 20대들은 사회,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보다는 신문, 방송 등 언론에서 정해진 지식과 소식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자신만의 생각이나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20대들에게는 사회현상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본지에서 6월2일 지방선거의 날을 맞아 우리학교 대학생들의 투표에 대한 관심도나, 정치적인 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신이 진보적 성향인지 보수적 성향인지도 모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이유에 대한 뚜렷한 논거를 들어 말하는 학생은 극히 드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생들이 정치나 사회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트위터나 아이폰들을 이용해 다양한 대화의 장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20대들에게 친숙한 매체를 통해 정치에 관련된 상황을 많이 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의화청

무엇을 알아야만 하는가

계혁원 교수 (정보시스템공학과)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당연히 알아야 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모양이다. 나이를 먹고, 그럴듯한 직책을 맡고 나니 더욱 그러하다.

모르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신원동에 산다고 했다. 신원동이 어디인지 몰라 물으니 신정동의 옆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신정동은 또 어디냐고 물을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군요'라고 답하고, 집에서 지도 검색을 한다. 목록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면 신정동, 신원동으로 이어지는 양천구 경계가 된다.

외부 심사를 하게 되었다. 발표자는 온로지 기반의 정보 검색을 연구한다. 그럼, 온물로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이 발표자의 논문이 훌륭한지 아닌지 알 것이 아닌가. 심사위원 체면에, 온물로지가 무어냐고 발표자에게 물어볼 수는 없는 법. 조용히 인터넷으로 단어 검색을 한다. 아, 그런 것이었군. 이제 원래 알고 있던 양 행세를 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본다.

유립 출장 계획이 있어 유료화 환율이 관심이다. 속칭 그리스 경제 위기로 유료가 떨어져서 다행스럽다. 알렉산드로스, 안토니우스 등의 우아한 이름을 가진 그리스인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말이다. 그 여파로 최근 국내 주가가 급락했다는데, 달러-캐리 트레이드가 이탈되는 것도 원인이다. 이런 또 무슨 용어인가, 블로그와 카페의 게시물을 훑어본다. 금리와 환율의 차이에 의한다고 설명이 잘 되어 있다. 특히 고등학생이 운영하는 경제 블로그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고등학생도 잘 아는 용어였다는 사실이 잠깐 부끄러웠지만 이제 나도 알고 있으니 괜찮다고 위안한다.

인터넷과 방송에서 나오는 줄임말은 더 어렵다. 수삼은 '수상한 삼형제'이고 개콘은 '개콘 콘서트', 미사는 '미안하다 사랑한다'이며 미삼은 의외로 '미레관 삼삼'을 뜻한다. 어디까지 응당 알아야 할 것이고 어디까지는 몰라도 되었던 것일까.

실제 이러저러한 뉴스에 신경을 쓰다 보면

면 정작 본업은 뒷전으로 밀리기도 한다. 전공 관련 정보를 알기 위해 검색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가십의 링크를 따라가는 경우도 많다. 어떤 정보들은 나중에도 쓰이겠지만 (신원동이 사라지지는 않겠지) 참고자료와 같은 신조어는 몇 년만 지나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전공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학계에서도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 산업 또는 이슈를 선점하려는 욕심이 넘친다. 내가 전공하는 컴퓨터 그래픽스는 최근 15년간 데이터 처리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순수 CPU 처리, SSE 응용, T&L의 GPU 처리, 완전한 GPU 처리, 프로그램 가능한 GPU, 멀티코어 CPU 응용, 이형 컴퓨팅 등의 용어가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연산을 CPU에서 할지, 별도의 외부 장치에서 할지, 서로 협동해서 할지에 대한 논의에 불과하다. 거기에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사람들을 겁먹게 하고 있는 것이다.

스마트 디바이스, 3D 입체영상, SNS, 감

성공학, 개인화 서비스와 같이 공부해 두지 않으면 큰일날 것 같은 용어들이 난무한다. 무엇을 공부해야 취업에 유리한지 학생들도 혼란스럽다.

한편 요즘 취업 담당자와 이야기해보면 컴퓨터 기초과목인 자료구조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 아쉽다고 한다. 타대학의 한 교수님은 공기업 입사 시험을 출제하는데, 경제원론 같은 기초과목에서도 원리 이해 문제를 내면 올바른 답이 적다고 한다.

집에서 저녁을 먹고 소파에 누우니 짐사림이 편지를 준다.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기 쉽다. 그렇다고 앓아있기는 싫으니, 몸을 비스듬히 기울여 쿠션을 베고 로마 귀족의 만한 자세를 한다. 어디서 본 것은 있어서, 청동 그릇에 포도라도 내어 오라고 호기를 부려본다. 이런 류의 지식들이 그래도 쓸모는 있는 것인가?

한 줄 댓글

'전자투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곧, 6.2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최근 '88세대운동본부'가 88만원 세대의 88% 투표 참여 가치를 내걸고 이번 지방선거 전자투표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전자투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김영주(한국어문 1)

고등학교 때 전자투표를 해봤었는데, 보안성만 확실하다면 간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양형원(영어영문 3)

전자투표 찬성합니다. 투표율을 올릴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안점도 많이 마련해야겠지만요.

박영준(경영 4)

투표의 본질,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변화는 불가피하겠죠. 역시 보안과 인증 등의 시스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안동균(경영 2)

선거의 4대 요소 중에 비밀선거가 포함되어 있죠. 과연 전자투표가 일말의 의혹을 가지지 않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네요.

최재봉(지정 2)

정치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최도빈(지정 3)

보안이 확실하다 해도 대리투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김한여울(한국어문 4)

전자투표의 긍정적인 면보다 해킹이나 조작 또는 대리투표같은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이 보이므로 반대합니다. 애초에 문제는 투표방식을 바꾸는 것보다 투표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투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합니다. 문제는 투표를 안하는 사람들이겠죠.

김명래

취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외적인 IT강국, 하지만 보안부분은 많이 취약한 우리나라이기에 걱정이 먼저 앞서네요. 당장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합니다.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준비해 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한줄댓글' 관련 게시물은 '낙산의 메아리'에 매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주제에 대한 학우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작성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상품 수령시 연락할 수 있도록 댓글 뒤에 학과 및 학년을 꼭 기재해 주세요. 학우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438호 당첨자는 김한여울(한국어문 4)학생입니다.

독자투고

안녕하세요. 한성대신문에 게재될 독자투고를 받습니다.

'학교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한성대학교는 이런 점이 부족하고 불편했다' 등 학내·외 이슈들에 대한 여러분의 주장 혹은 '한성대신문'을 읽고 느낀 점 등을 4,5매(900자) 분량으로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원고는 kmh77@hansung.ac.kr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된 원고는 본지 여론면에 게재됨과 동시에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한성대신문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너답게 사고하라! 너를 표현하라!” 2010학년도 제4회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 1. 논리적이고 구조적인 사고력 확장
- 2. 지정 주제에 대한 창의적 접근과 문제 해결 능력
- 3.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과 발표 능력 향상

- ◆ 지정 주제 1. <2010년 지방 선거> 20대 유권자를 겨냥한 선거 공약
- 2. 저출산·고령화 현상 해결 방안
- 3. 제시된 자료의 사회 현상 분석과 극복 방안

※ 지정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riting Center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숙지할 것

- ◆ 대회 일정 1. 예선 접수 : 2010년 5월 3일(월) ~ 2010년 5월 14일(금)
- 2. 본선 발표 : 2010년 5월 18일(화)
- 3. 본선 대회 : 2010년 5월 20일(목) DLC 오후 2시 ~ 오후 5시
- ◆ 접수 방법 1. 지정 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프레젠테이션 문서로 작성
- 2. 문서 출력물 3부(페이지 당 2개 슬라이드 들어간 유인물로 출력) 사고와 표현 연구실 제출
- 3. 원본 프레젠테이션 문서 파일 사고와 표현 이메일(writing@hansung.ac.kr) 제출

- ◆ 심사 기준 예심 프레젠테이션 문서 작성 능력 평가
- 1. 논리적 구성 및 전달력
- 2. 내용의 창의성
- 3. 효과적인 주제 전달
- 4. 슬라이드 구성 능력 등
- 본심 발표 능력 평가
- 1. 논리적 설득력 및 전달력
- 2. 내용의 창의성
- 3. 슬라이드 구성 능력
- 4. 발표 전략
- 5. 질의·응답 태도

- ◆ 시상 내역 최우수상 1명 상금 50만원
- 우수상 4명(단과대학별 1명) - 상금 각 20만원
- 가작 8명(단과대학별 2~3명) - 상금 각 10만원
- ※ 문의할 곳 : 사고와 표현 연구실 (연구동 B101, 02-760-4354)
-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자유게시판, 이메일 writing@hansung.ac.kr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위원회

사람을 만나다

코리안 디자인 프로젝트, 도중현(패디 3) 학생을 만나

유럽의 패션 넘어선 한복의 아름다움

지난 4월 14일 우리학교의 학생들이 '코리안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실력을 뽐냈다.

'코리안 디자인 프로젝트'는 중앙일보사에서 주최한 것으로 여러 명의 디자이너들이 하나의 팀을 만들어 동일한 주제로 각자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코리안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미래의 디자이너로서 작품을 뽐내게 되었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의생활학부를 졸업한 한 선배가 디자인으로 유명한 덕분이라고 한다. 인터뷰를 위해 만난 도중현(패디 3) 학생은 "커플 디자이너인 Steve J & Yoni P 선배들이 유명해지면서 교수님에 제의가 왔다"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도중현 학생 외에 의생활

학부의 패션디자인전공 학생들 5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 팀의 구성원들 모두가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모인 것이라 열정적인 분위기에서 작업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한국의 미"를 주제로 만들어진 작품들은 한복의 조끼를 모티브로 하였다. 그 중 도중현 학생의 작품은 개인적인 취향에 한복이 가진 곡선의미를 가미하여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 냈다.

도중현 학생은 "남성적인 것"을 좋아하는 평소의 취향과 한복의 미를 결합시키려고 노력했다"며 "라이더 조끼의 기본적인 모양이 한복 조끼의 모양과 같아서 라이더 조끼에 한복이 가진 곡선을 더해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단순히 한국의 미를 위해 한복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라이더 조끼라는 개인적인 취향을 작품에 접목시킴으로써 단순히 출품하기 위해서 작업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통한 개인의 만족감을 함께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도중현 학생의 작품 외에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예비 디자이너들의 작품들 역시 한국의 미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대부분 한복의 '선의 아름다움', 즉 곡선과 곡선이 주는 부드러움을 주로 이용하여 다양한 모양의 작품들이 탄생했다.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모두 한복의 아름다움과 디자이너들의 열정이 함께 녹아있다는 것이다.

도중현 학생은 "이번 '코리안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여러 가치를 생각해 되었다"

고 말했다. 그중에도 "대부분 현대의 옷들이 유럽이나 미국 등의 디자인을 따르고 서구적인 패션 스타일을 따르는데,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디자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면서 "한국의 미를 패션 디자인에 이용하는 것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며 프로젝트에 참여한 소감을 말했다.

비록 프로젝트에 참여한 다른 학생들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 학생들 역시 예비 디자이너로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코리안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의생활학부의 학생들은 이를 통해 Steve J & Yoni P라는 커플 디자이너가 그랬던 것처럼 디자이너로서의 자신감을 많이 얻는 계기가 됐다.

윤민혁 기자 dajai@hansung.ac.kr



대학원 인터뷰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형구 원우

나이를 뛰어넘은 면학에 대한 열정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전기내선 관련 회사를 설립해 사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성북구 구의회 의원, 성북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회장 등 여러 사회단체의 회장으로서도 큰 성공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만학의 나이에 새롭게 공부를 시작한 김형구 원우에게 가장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집안의 경제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그는 대학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군제대후 친척이 운영하던 전기관련 회사에서 일하던 중 그는 1978년 미주기공주식회사라는 전기내선 관련 회사를 설립하였다. 한창 경제가 부흥하면서 민영 아파트 건설이 시작되던 때에 마침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기관련 회사를 설립했고, 커다란 성공을 이루어 현재는 연 매출 100억이 넘는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는 미주기공주식회사를 경영하는 동안 정밀한 회사 운영과 수많은 기부활동으로 '산업건설전비

분야 35년 모범업체' 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유총연맹 성북구지회 지부장, 안암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 주민·행정단체에서도 다양한 활동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젊었을 때 성격이 활발한 편이어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했다. 성북구 구의회 의원은 안암동 '바르게 살기' 단체 위원장 활동이 계기가 되어 하게 되었다."며 씩스러운 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의 활동경력만큼 화려한 것이 그의 수상경력이다. 1992년에 민주평화통일 공로상, 1994년 대통령 표창, 2010년 행정자치부 장관상 등 많은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수상경력에 대해서 그는 "특별히 뛰어난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 받게 된 것 같다."며 자신을 낮추었다.

만학의 나이에 사회복지학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 특히 노인복지제도에 허술한 면이

많다. 후에 내가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에게 복지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언하기 위해서는 복지제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직접 복지사업과 관련된 회사를 설립하고 노인복지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싶다"고 답했다.

대학원 생활에 대해서 그는 "대학교와 달리 휴강이 거의 없고, 수업도 빽빽하게 진행되어 조금 힘들지만 뒤늦게 시작한 공부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는 "젊어서 최선을 다하라. 미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짜야한다."며 "대기업만 선호하지 말고 중소기업도 좋은 곳이 많으니 보는 눈을 넓혀라"고 말했다.

공부를 위해 그동안 해오던 사업과 많은 활동에서 물러났다는 그에게서 나이를 뛰어넘은 면학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느낄 수 있었다.

김영훈 기자 755914@hansung.ac.kr

기자수첩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기온이 높아지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면 서 여성들의 다이어트 욕구는 한층 커지고 있다. 하늘하늘한 원피스와 미니스커트를 입고 싶은 마음이 한층 급해지는 것이다. 이들은 단기간에 살을 빼겠다는 욕심에 강도 높은 다이어트 작전에 들어가지도 한다.

기자는 얼마 전 수업시간에 다이어트에 관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우리들은 운동에 시간을 투자하지만 그만큼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초 투이지에나 주립대학의 연구에서는 운동의 통념을 뒤집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내용인 즉, 평소활동량을 유지한 그룹보다 꾸준히 운동한 그룹의 체중이 더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과는 달리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운동을 더 심하게 할수록 스스로에게 음식으로 보상을 주고자 하는 본능이 발휘되어 오히려 운동 후에 더 많이 먹게 되었다"고 했다. 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한 시간을 뛰었다면 자기 통제력이 떨어져 먹을 것이나 휴식으로 보상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기자의 경우도 굶어도 다이어트를 하다면 먹고 싶은 음식에 대한 욕구가 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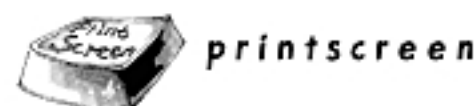
어느새 긴장이 풀리면서 이전보다 폭식을 하게 된다. 또한 고생한 만큼 변화가 빨리 나타나지 않아 조금만 태도를 갖기 쉽다.

이러한 경우 스트레스의 연속이 생기기 되어 꾸준한 다이어트를 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느긋하게 다이어트를 하도록 조언하고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 문제로 모 한의 원에서는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가려주고 이에 따른 체질관리를 함으로써 훨씬 편하게 체중감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자도 이러한 다이어트를 경험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꾸준하게 하지 못하고 아직도 해매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만족 때문에 식탐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아름다운 몸매를 얻을 수 없다. 가장 근본적인 것을 과감히 고칠 때 몸은 최상의 상태로 진화할 것이다.



이예진기자 odory11@hansung.ac.kr



▲애니·제품과 학생이 정주택 총장의 캐리커처를 그려주고 있다.

제법 비슷하나요?

지난 12일, 미래관 잔디밭에서 총학생회가 주최 스승의 날 행사인 '교수님 캐리커처 그려드리기' 이벤트에서 애니·제품과 학생들이 정주택 총장의 캐리커처를 그려주고 있다.

김영훈 기자 755914@hansung.ac.kr



주간식단표

2010년 5월 17일(월요일) ~ 5월 21일(금요일)

일자(요일)	구분	식단			
(5/17) 월	카페테리아	쌀밥/잡곡밥 (500/600)	달걀카레비빔밥 2100	부대찌개 1000	미소장국 200
		과일 (300)	돈불고기 1000	건통기름샐러드 1000	조기구이 900
		김치(국내산) (200)	김말이튀김 700	도토리묵 400	취나물무침 200
(5/18) 화	카페테리아	쌀밥/잡곡밥 (500/600)	돌솥제육비빔밥 2100	쇠고기미역국 1000	팽이버섯국 200
		과일 (300)	두부강정샐러드 1000	공중역부이 1000	굴뱅이무침&소면 900
		김치(국내산) (200)	햇케 700	진미채무침 400	얼무된장무침 200
(5/19) 수	카페테리아	쌀밥/잡곡밥 (500/600)	해물스파게티&마늘빵 2500	순두부찌개 1000	콩나물국 200
		과일 (300)	미니돈까스&샐러드 1000	삼치강정 900	총무김밥&오징어무침 1000
		김치(국내산) (200)	김치전 700	파래김자반 400	얼무된장무침 200
(5/20) 목	카페테리아	쌀밥/잡곡밥 (500/600)	중국식잡채달걀 2000	동태찌개 1000	된장국 200
		과일 (300)	목은지돼지고기볶음 1000	콩치우조림 900	고구마맛탕&샐러드 900
		김치(국내산) (200)	클링글컷 700	두부조림 400	열갈이나물무침 200
(5/21) 금		석가탄신일			

♣ 식자재 공급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 로

- ①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검색 등 컴퓨터 자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인 이 폰은?
- ② 최근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의 국가, 수도는 마드리드, 투우로 유명한
- ③ 찬쌀·찹쌀·보리·밀가루 등을 찌서 누룩과 물을 섞어 발효시킨 한국 고유 술
- ④ 2010 동계올림픽과 2014 동계올림픽 유치에 실패했지만 2018 동계올림픽 유치에 도전중인 도시
- ⑤ 여성으로서 세계 최초로 14차 원등을 성공한 사람의 이름
- ⑥ 지구 표면의 일부나 전부의 상태를 기호나 문자를 사용하여 실제보다 축소해서 평면상에 나타낸 것
- ⑦ 어버이날 부모님께 달아 듣이는 꽃

정답자 발표

홍민기(무역3) 010-XXXX-6578  
 박애택(지정1) 010-XXXX-5716  
 송유경(기계1) 010-XXXX-9734

정답자에 한해 추첨하여 문화상품권(5천원)을 드립니다. 자번호 정답자는 연락 후에 신문사로 와서 상품권을 받아주세요.  
 문의 : 한성대신문사(02-760-4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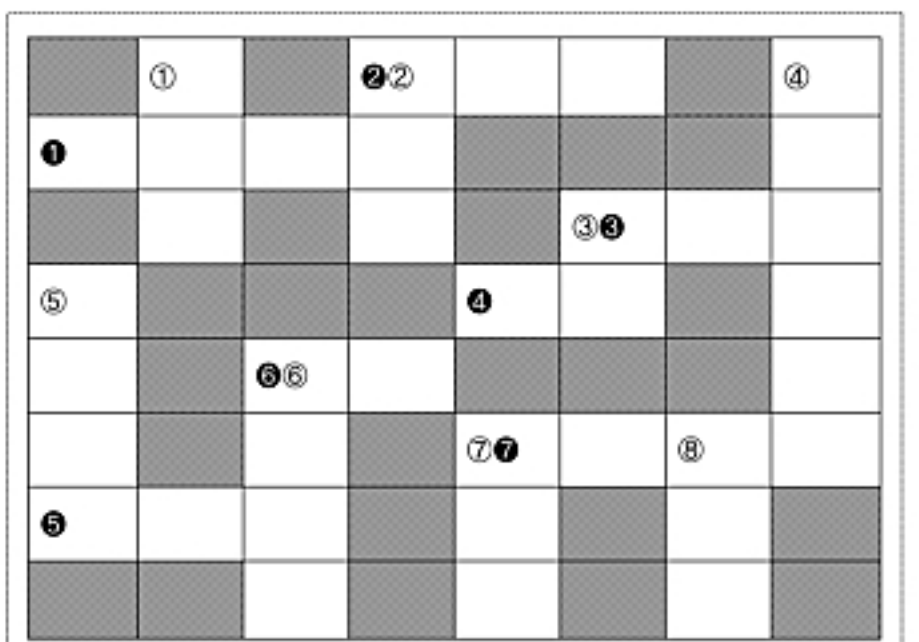
학과(학년)

이름:

연락처

세 로

- ① 일년김이라고도 하며 원산지는 남아메리카 서부 고원지대
- ② 전파매체의 광고주. 어원은 라틴어로부터 왔으며 보증인을 뜻하는 단어
- ③ 소의 제4위를 말하며 '홍성' 이라고도 함. 소처럼 되새김질하는 짐승의 제4위 즉 마지막 위를 고기로 이를 때 쓰는 말
- ④ 스마트폰의 잠정 중 하나로 영어로 응용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 ⑤ 중국의 국가 주석
- ⑥ 2010년 6월 2일, 지방 자치단체장을 뽑기 위해 투표하는 날
- ⑦ 렌즈를 통해 빛을 받아들여 감광물질(感光物質)이 입혀진 필름이나 필름 위에 영상을 맺히게 하는 기계
- ⑧ 주로 도로상에서 어느 곳까지의 거리 및 방향을 알려 주는 표지



# '2010 서울국제도서전' 저자와의 만남 등 볼거리 많아

## "책과 관련된 문화적 체험 요소가 있어 더욱 좋아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코엑스에서 '책과 통하는 미래, 미래와 통하는 책'을 주제로 2010서울국제도서전(이하 도서전)이 열렸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이번 도서전에서는 약 600여개 출판사와 네덜란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일본, 중국, 프랑스, 필리핀 등 해외 23개국의 74개 해외 출판사가 참가하고 있다.

김항근(두원공과대학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매년 도서전에 참여해서 책을 구입했다. 이번 도서전은 예년에 보지 못했던 프랑스권이 크게 펼쳐져 있는데 이는 프랑스에서 한국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한국문화가 많이 발전했구나'란 생각이 든다"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위상이 높아진 걸 확인한 것 같다"고 이번 도서전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서울국제도서전 홍보를 맡고 있는 고영숙 피알원은 "이번 도서전의 경우 주빈국 제도를 시행한 지 3년 만에 유럽국가에서 최초로 프랑스가 주빈국으로 참가했다"며 "주빈국 프랑스에서는 한국, 프랑스를 잇따라 테마로 100여 개의 출판사가 1500여 종의 다양한 도서를 전시하고 특별전, 영화 상영 등 프랑스와 관련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펼쳤다"고 말했다.

주빈국 제도란 도서전에서 한 외

국을 지정해 그곳의 다양한 서적 및 저자를 만나볼 수 있도록 도서전의 주인공이 되는 국가 선정해 도서전을 꾸미는 것을 의미한다.

도서전에서 가장 인기있는 이벤트 중 하나는 국내외 유명 저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저자와의 만남' 시간이다. 저자와의 만남에서 저자 박경철씨를 만난 국민성씨는 "인터넷을 통해 도서전에 알게 되어 참석하게 됐는데, 저자와의 만남이란 이벤트가 있었다"며 "평소 만날 수 없던 유명인을 만나, 눈앞에서 직접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많은 걸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서미해씨도 "평소에 관심있던 작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으니 공감대가 형성되고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이곳은 단순히 책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책과 관련된 문화적 체험 요소들이 있어 참 좋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서전에는 이외에도 고전과 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인문학 카페, 자격증 수험생 특별전 등의 코너들이 이어졌다. 남원과 함께 도서전에 참석한 유명화씨는 "인터넷에서 보고 사려고 했던 책들을 여기에 와서 샀다"며 "아이의 영어 교재를 사려고 했는데 저렴한 가격에 팔고 있어 여러 개를 사게 됐다"고 말했다.



▲ 지난 13일 2010서울국제도서전에 참석한 아이들의 모습과 작품 관람 모습이다.

도서전에서는 도서전을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경품을 주기도 한다. 안현선(인천시립전문대학 1학년)씨는 "도서전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우리학교 교수님이 오신다. 때문에 교수님의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도서전에 오게 됐다"며 "우연히 응모권 행사가 있어 지원해 봤는데 이렇게 당첨될 줄 몰랐다. 집에 가서 오늘 받은 책을 꼭 읽을 것이다"고 기뻐했다.

고영숙 피알원은 "서울국제도서전은 국내·외의 출판인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출판인들의 축제이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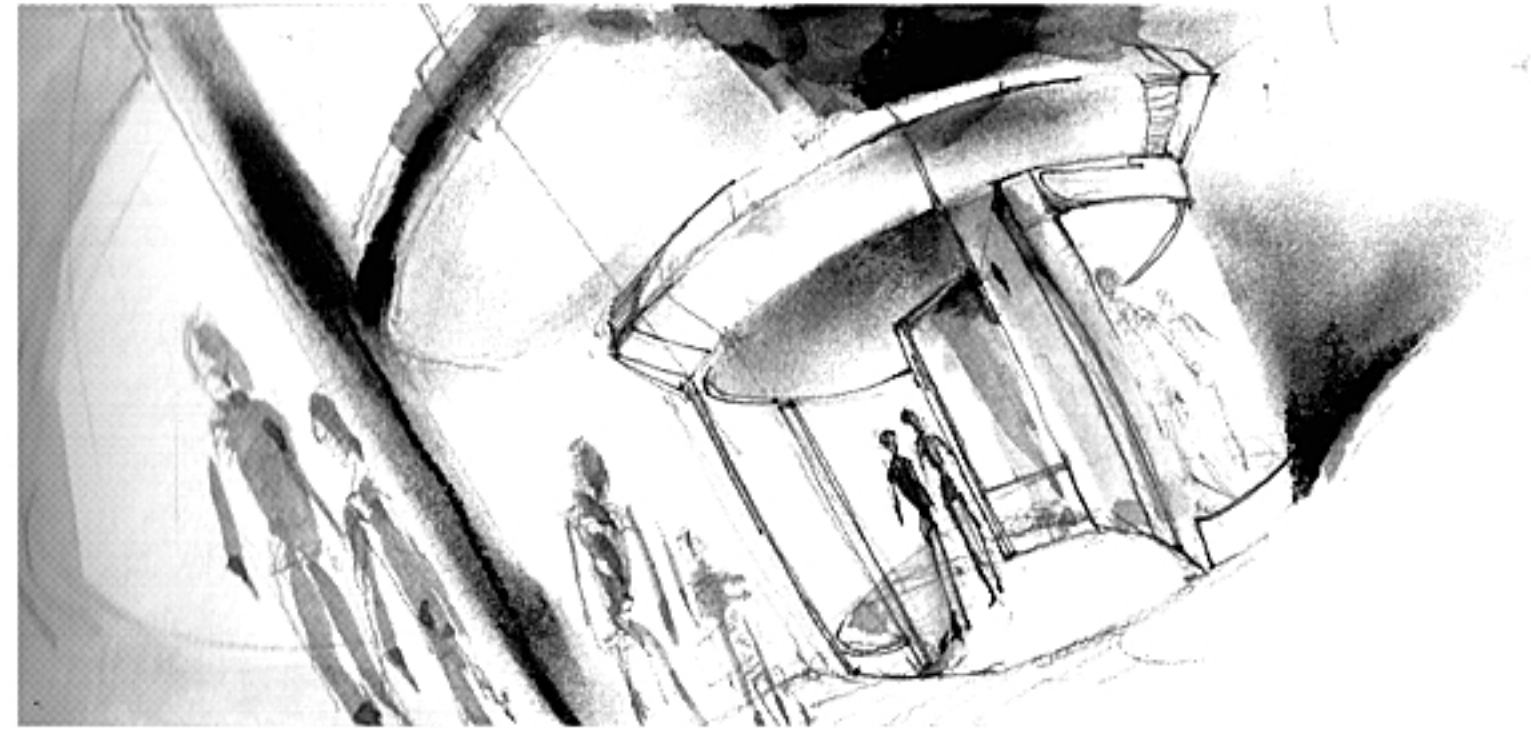
하지만, 출판인 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도서전에 참여해 유명 작가들과 만나고 다양한 세미나를 겪어볼 수 있는 행사이다"며 "출판업계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나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 지식을 쌓는 학생들에게 이번 도서전은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 있을 행사에도 관심을 갖고 방문해 다양한 책을 접하며 꿈을 키워보면 한다"고 말했다.

박형진 기자 phsillar@hansung.ac.kr

김인경 작가

도설연재

# 그곳에 그는 없었다. (4)



누나는 내일이면 요양원으로 간다. 그리고 오늘, 현수는 그녀, 윤혜선을 만나야 한다. 그녀를 며칠 전에 멀리에서 잠시 보기는 했었다. 사내를 따라 그녀가 치료받고 있다는 병원에 가 본 것이다. 그녀는 산책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어디를 보는 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시선과 오래도록 햇빛을 받지 않은 것 같은 석고상 같은 피부, 부유하는 먼지들이 그녀의 피부에 흔적을 남길 정도로 창백한 얼굴이었다.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의 얼굴은 모두 저런 것일까. 현수는 늘 먼 곳을 바라보는 누나가 떠올라 기분이 더욱 낮게 가라앉았다.

현수의 휴대폰 벨이 세 시 정각에 기다렸다는 듯 울렸다. 사내는 주민센터 정문 앞에 와 있다고 했다. 현수는 사내와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밖을 내다보았다. 사내의 흰색 자동차가 어둠 속에서 유독 흰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나는 흰색은 깨뜨릴 수 없는 무언의 약속이었다. 현수와 사내의 약속, 그 속에는 누나의 요양원 비용이 들어 있는 것이다.

사내는 윤혜선, 그녀가 세종호텔 커피숍에 있다고 했다. 정면 오른쪽 창가 자리에, 오른쪽이라는 말을 힌주어 강조했다. 현수가 그 자리를 못 찾을 거라는 조바심이 든 모양이었다. 사내는 현수를 태우고 비가 내리는 도로를 거침없이 달려 나갔다. 사내는 등대문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들어서자 현수를 힐끗 쳐다봤다. 현수는 사내가 보내준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잘 어울리는군요. 제 동생들, 형진이를.....,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사내는 현수에게서 동생의 모습을 또다시 찾고 있었다. 현수는 이전 그런 사내의 눈빛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현수는 오늘 하루만 박형진이 되자는 결심이 아니더라도, 얼마 전부터 자신이 혹 박형진이 아닐까 하는 착각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사내를 만날 때마다, 수첩에 적힌 박형진에 대한 메모를 읽을 때마다, 윤혜선을 병원에서 볼 때도 그랬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완전히 박형진으로 사내와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사내는 계속해서 주의를 주었다. 최대한 말을 자제하고 그녀의 말을 들어달라고 했다. 그리고 헤어지자는 말을 하라고 했다. 그것이 그녀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죽는다는 것과 헤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이 다르다는 것인가. 어차피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 않은가. 단지, 그 시간의 차이가 어느 정도나라는 문제일 뿐. 현수는 그 생각이 입술 끝으로 새어 나올 것 같아 답대 한 대를 깨내 물었다. 현수는 답대 연기가 차안을 가득 채웠지만 결코 창문을 열지 않았고, 사내 또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긴 침묵은 차가 호텔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되었다. 사내는 잠시 호흡을 고르더니,

"이제부터는 현수 씨 몫입니다. 현수 씨의 행동에 따라 그녀는 삶의 끈을 유지할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현수 씨의 통장이 돈이 입금될 수도, 입금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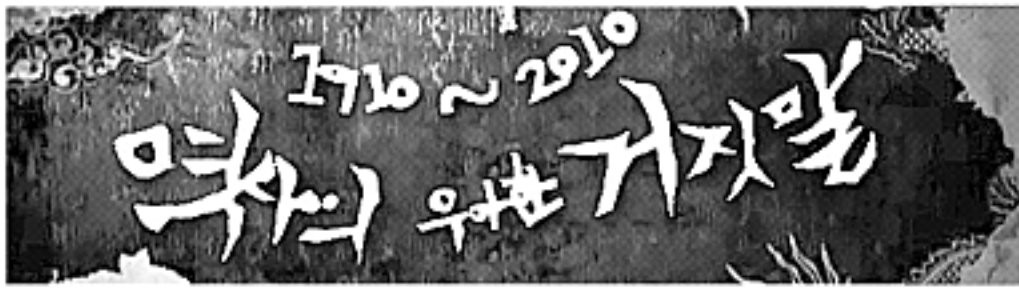
사내의 말투는 첩보영화 속에서도 나올법한 작전 명령과 같았다. 사내의 시선이 자동차에서 내리는 현수의 모습에 집요하게 따라붙었다. 현수는 자동차 문을 일부러 크게 닫았다. 그러자 사내의 차는 기다렸다는 듯 호텔 앞을 지나 명동 쪽으로 질주해 나갔다. 시간은 세 시 사십 분이였다. 갑자기 내린 비로 이른 아침이 거리에 가득했다. 그 어둠 속에서 호텔 입구가 스크린처럼 커다란 빛을 쏟아냈다. 현수는 계단이 하나씩 줄어들어 갈수록 현기증이 났다. 회전문으로 향한 마지막 계단에서는 허공에서 발걸음이 순간적으로 멈춰져 잠시 비틀거리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현수의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들은 회전문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통과해 들어갔다. 그러나 현수는 회전문 중 어느 칸으로 들어가야 할 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문을 통과해 호텔로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계속해서 그 회전문 안에서 돌고, 돌고 걸다는 두려움 들었다.

"저기, 이봐요?"  
누군가 현수의 등을 가볍게, 하지만 거침없이 밀쳤다.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 사람, 저 사람..... 한 사람....., 아니 여러 명일 수도 있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수의 등 뒤로 제 갈 길을 바쁘게 가고 있을 뿐이었다.

그날은 비가 오느라 많이 내렸어요. 형진 씨와 함께 남산으로 드라이브를 가는 중이었어요. 남산 순환 도로를 천천히 돌면서, 전 생각했어요. 이런 날 케이ابل카를 타고 싶다고. 아주 흐린 날, 안개가 가득해서 거의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날, 케이ابل카를 타면 어떤 모습일까..... 형진 씨가 그러더군요. 사람들은 이런 날엔 케이ابل카를 타지 않아. 이런 날 케이ابل카를 타는 것에 익숙하지 않거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짙어지는 안개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이미 익숙해서, 눈앞이 잠시라도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법이지. 그날따라 형진 씨는 무척 진지했어요.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차가 순환도로를 따라 서서히 위로 향했어요. 위로 갈수록 안개가 더욱 짙어지자,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안개 때문에 주위의 차들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아마 형진 씨는 불안한 제 마음을 읽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가 무슨 말을 할 지, 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형진 씨는 얼마 전부터 회사 공금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며칠 후면 퇴직금도 놓을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그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공금을 채워보려고 도박에까지 손을 댔으니까요. 그날, 그러니까 사고가 난 그날, 그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한 모양이었어요. 더 이상 내가 손 쓸 방법이 없어. 우리 결혼은 나중에, 아주 나중에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미안하다..... 그는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헛웃음을 냈고, 차는 안개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어갔죠. 횡단보도 앞에서 세운테니 저 보고 내리라고 하더군요. 혼자 있고 싶다면서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제..... 바라봤지요. (다음 회에 계속)

### ④ 대동여지도의 진실

## 대동여지도에 붙는 물음표들



박종준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사무국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동여지도에 관하여 배운 내용들은 이렇하다. '대동여지도는 고산자 김정호가 전국을 약 10년 동안 순수하게 걸어 다니면서 그렸다. 그리고 대동여지도를 그리기 위하여 백두산을 일곱 번이나 등정하였다'는 것. 그렇다면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대하여 몇 가지 의문점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당시의 지도와는 달리 위도와 경도가 상당히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연 순수하게 걸어서 다니면 그렇게 정확한 지도를 그릴 수 있을까? 오늘날의 대한민국전도를 그리는 것을 보면 항공촬영에서부터 온갖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아주 정밀하

게 지도를 그린다. 그런데 아무런 첨단장비를 쓰지도 않고 그냥 단순히 걸어 다니면서 대동여지도와 같은 정밀한(당시로서는 상당히 정밀한) 지도를 그려 낼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둘째, 백두산을 7번 등정 하였다는데, 왜 일까? 그것도 7번씩이나. 백두산은 3천m가 안 되는 산이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 보았을 것이다. 비행기는 일반적으로 1만m 높이에 떠서 다닌다.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는가? 내가 알기론 비행기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 국토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았다는 사람은 한사람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3천m도 안 되는 백두산에서 우리나라 전도가 보일까? 보이지 않는다면 김정호는 왜

백두산에 7번씩이나 올랐을까?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다. 혹시 압록강과 두만강의 물줄기를 그리기 위하여 백두산에 오른 것은 아닐까? 그런데 본인이 백두산에 직접 올라갔을 때 압록강과 두만강의 물줄기는 보이지 않았다.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압록강과 두만강은 백두산 천지 땅속으로 흘러 스며들어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현을 한다. 그러면 김정호는 백두산에 왜 올라갔을까?

셋째, 간도협약과 대동여지도와의 관계이다. 간도협약은 일본과 청나라와의 협약으로서 일본이 간도 지방을 청나라에 넘겨주고 남만주 철도부설권과 광산개발권을 얻음으로써 이루어진 협약이다. 그런데 대동여지도는 무엇인가, 대동여지도는 간도가 우리땅이 아니라고 그리

져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운 간도협약이 가짜인가, 아니면 간도가 우리땅이 아니라고 그려져 있는 대동여지도가 가짜인가. 이것은 우리 근대사에서 꼭 밝혀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현재 우리가 배운 내용대로라면 간도협약이 가짜가 아니면 대동여지도가 가짜인 것이다. 과연 이런 실정에서 간도문제를 거론할 수가 있겠는가? 2009년은 간도협약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우리는 간도가 우리땅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충분하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말들이 바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인 것이다. 대동여지도는 간도지역이 우리 땅이 아니라고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므로 우리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대동여지도의 진위 여부는 꼭 가려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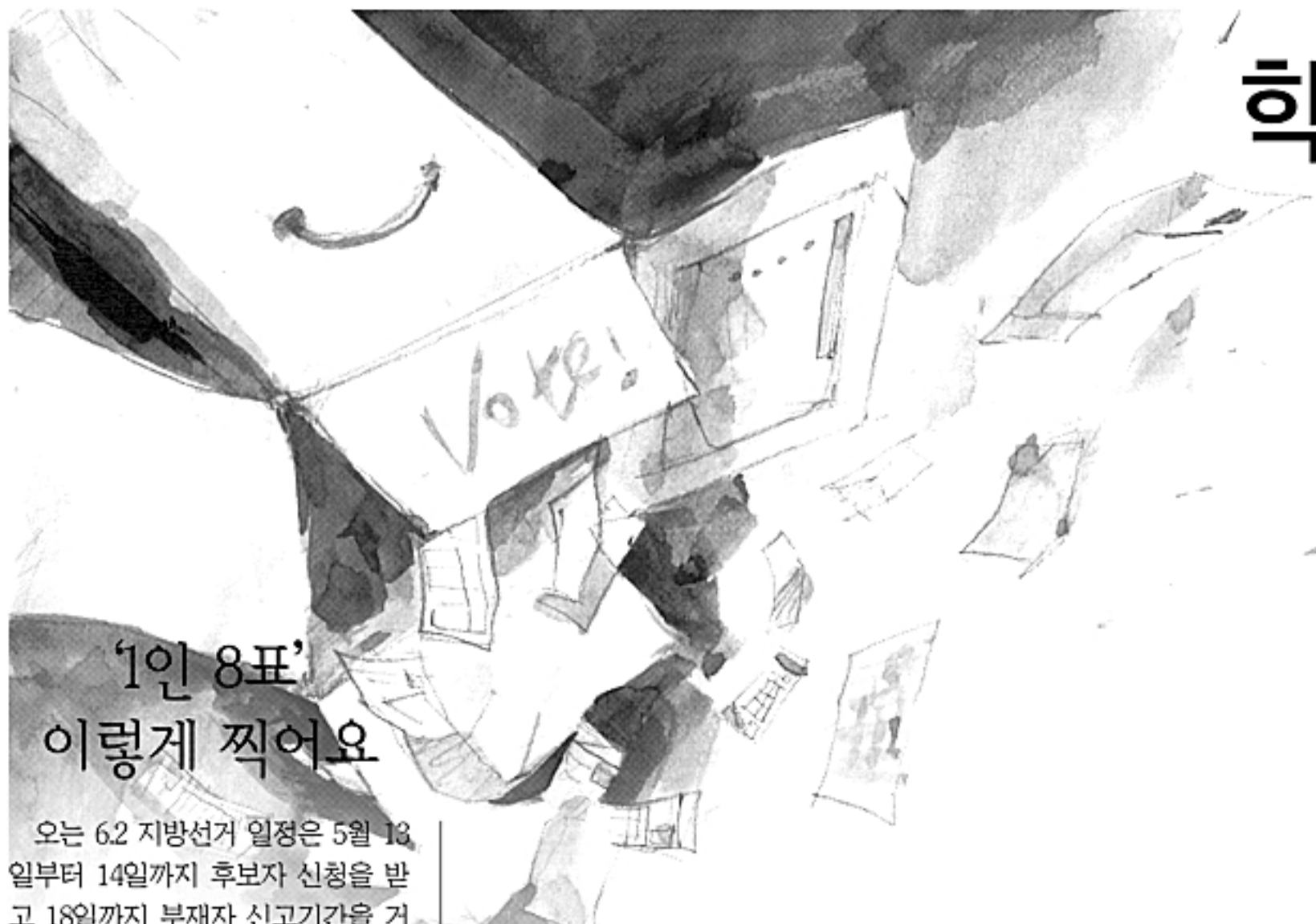
# 2010 우수강의 수필 공모전

수필 공모전

추천받고 싶은 수업은 친구와 동아리에게 알려주고, 여가시간의 기쁨이든 기이 남에게도 알려주세요.

우수강의 수필 공모전에서는 과수님의 강도강의와 색깔있는 학습법, 학우에게 알려주고 싶은 강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b>공모 주제</b>	자신이 들었던 강의 중 학문적 자극이나 새로운 깨달음, 자기 계발의 계기 등을 주었던 "강도 강의"와 그 강의를 지닌 "색깔있는 교수학습방법"을 주제로 한 수필
<b>공모 대상</b>	2009학년도 개설과목(1,2학기 포함)
<b>공모 자격</b>	2009학년도 개설과목을 수강한 한성대학교 학부생
<b>공모 요건</b>	1. 공모 주제를 잘 담고 있는 글 2. 수필 형식을 취하며, 자신이 쓴 글 3. [한글]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분량은 3000자 내외 원고 분량 측정 :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 4. 글은 제목과 본문으로 구성되며 다음사항은 수필 마지막 페이지에 기재 강의명, 담당교수(정확히 기재바랍니다), 수강학기, 전공/교양 구분 응모자이름, 학부/과, 학번, 학년, 연락처전화번호 5. 1인당 1점(1과목) 응모 가능
<b>제출 방법</b>	교육개발연구원 메일(hancl@hansung.ac.kr)로 제출 메일제목과 파일명 : 수필공모 00학과 000이름
<b>공모 기간</b>	2010. 4. 12(월) ~ 5. 23(일)
<b>시 상</b>	- 최우수작 1명 : 30만원 - 우수작 2명 : 각 20만원 - 가작 4~5명 : 각 10만원 (수상은 참여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b>문의처</b>	교육개발연구원 전화 : 760-5816 위치 : 우촌관 610호
<b>심사결과발표</b>	2010. 6월 둘째 주(예정) 1. 학교홈페이지 한성공지 2. 교육개발연구원 홈페이지(www.hansung.ac.kr/~csl)



# 학생 74%, 6.2지방선거에 투표할 의향 있어

## '1인 8표' 이렇게 찍어요

오는 6.2 지방선거 일정은 5월 18일부터 14일까지 후보자 신청을 받고 18일까지 부재자 신고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5월 20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외 전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동시에 뽑고 1인당 5명의 후보를 뽑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은 1인당 8명의 후보를 투표한다.

부재자 투표일은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이며, 먼저 신분증을 가지고 동사무소, 구청 등의 공공기관에 설치된 각 투표소로 가서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면 1차 투표용지 4장을 받을 수 있다. 1차 투표에서는 ▲ 교육감(백색) ▲ 교육의원(연두색) ▲ 지역구 구·시·군의원(노란색)의 투표가 진행되며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가서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하면 된다. 2차 투표에서 ▲ 시·도지사(백색), ▲ 시장·군수·구청장(연두색), ▲ 비례대표시·도의원(하늘색), ▲ 비례대표구·시·군의원(노란색)의 투표가 진행되며 역시 비치된 용구로 가서 기표한 후 4장을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는 것으로 끝난다.

지방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대학의 부재자투표 신청자가 2천명이 넘으면 부재자투표를 설치하겠다고 공표했다. 부산교대의 경우 1천6명, 덕성여대의 경우 1천명이 넘어 부재자투표소를 설치했다.

우리학교의 경우도 이에 희망을 얻어 부재자 투표를 준비했다. 하지만 우리학교에서의 부재자투표소 설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박미성(행정 3)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은 "홍보부측과 부재자투표를 신청받는 곳의 담당자들 부재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80여명의 신청자 중 서울권을 제외한 지방권 학생들은 27~28일에 사회과학대 학생회실로 와서 투표용지를 받아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 "20대의 문제는 20대 스스로가 풀어야나가야 해"

본지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6.2 지방선거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해 301명을 의견을 얻었다. 먼저 6.2 지방선거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01명 중 224명(74%)은 '예' 선택했으며, 77명(26%)은 '아니오'를 택했다. 투표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후보자 93명(32%), 정당 93명(32%), 공약 83명(28%), 기타 23명(8%), 무효 9표(3%)로 응답결과가 나왔다. 자신의 정치성향에 대한 조사 결과는 진보 105(35%)명, 보수 35(12%)명, 중립 96(32%)명, 관심없다 54(18%)명, 무효 11(4%)표로 응답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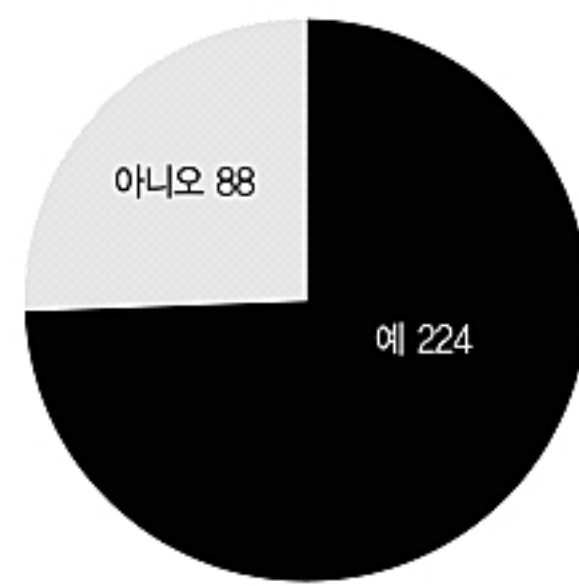
이번 설문조사 결과 6.2지방선거에 74%의 학생들은 투표할 의사를 가지고 있음을 내비쳤는데 이는 대학생유권자연대와 사회동향연구소가 대학생 9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3.5%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겠다고 답한 것과 비슷한 수치다. 또 대학생들이 보수적화 되었다고 지적되는 상황에서 우리학교의 경우 진보가 35%로 보수 12%보다 약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학생들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겠다고 의지를 갖는 건 좋지만 좀 더 정치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설문조사를 하는 중 보수와 진보란 단어를 헷갈려하고, 각 정당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당을 바꿔 말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또 지지하는 정당으로 민주당을 선택한 한 학생은 이유를 묻자 "그냥 MB 정부가 싫어요"라며 구체적인 이유를 대지는 못했다. 이는 한나라당을 선택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가족,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지한다는 이유 선택한 사람과 해당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뽑았기에 선택한 사람들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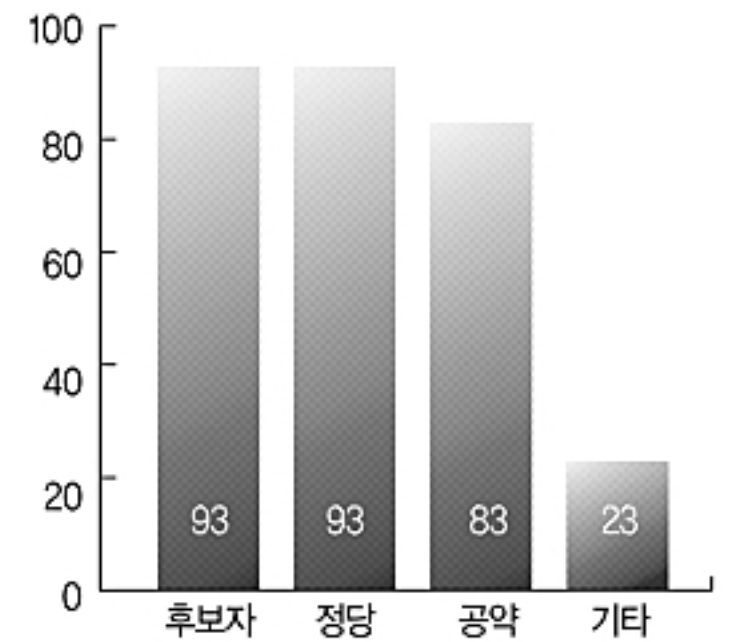
이번 상황에서 젊은이들의 정치 관심과 투표를 향상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이들이 있다. 88%세대운동본부의 경우 회원들은 매일 아침 출근 시간에 1인 집회를 펼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88%세대운동본부 이성찬 대표는 "젊은이들의 정치 무관심은 1차적으로 사회가 만들었다. 사회에서 스펙 경쟁을 강요하면서 '너 혼자 열심히 공부해 잘 살아라'고 주입을 하고 있다"며 "스펙을 쌓기에 바쁘다보니 정치에 관심을 갖을 여유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의 젊은이들은 정치를 더럽고, 추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축제이다.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더 좋은 사회 미래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며 정치에 대한 편견이 개선돼 젊은이들의 정치참여가 늘어나길 희망했다.

2030정치주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의 추성호 대표는 "기존의 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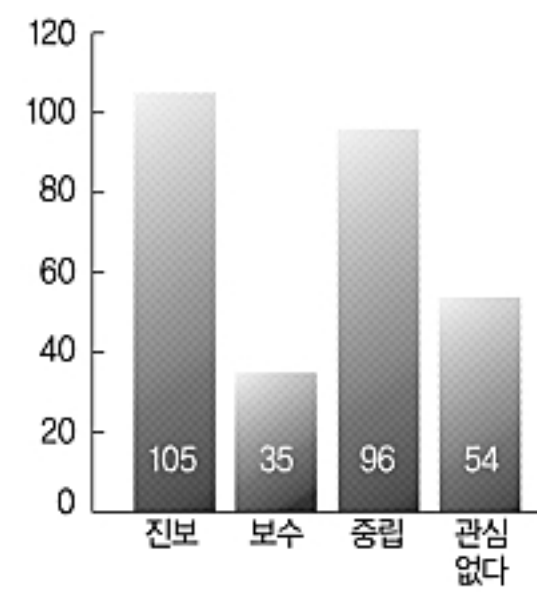
### 1. 이번 6.2 지방선거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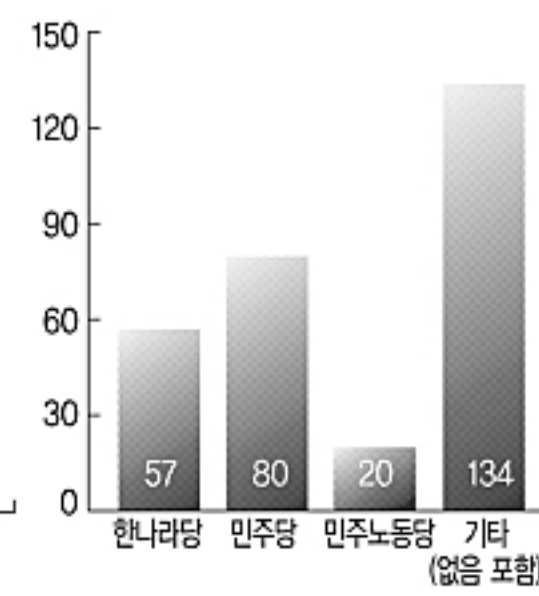
### 2. 투표시 주로 고려하는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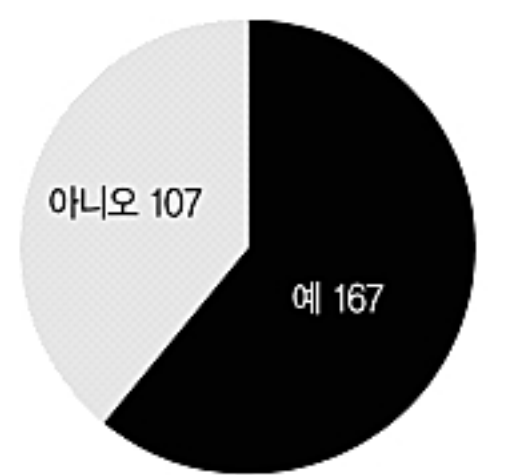
### 3. 자신의 정치성향은?



### 4. 지지하는 정당이 있는지?



### 5. 부재자 투표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인들은 20대를 신경쓰지 않았다. 때문에 20대를 위한 정책도 없었고, 20대의 표를 얻기 위한 선전도 없었다."며 "이런 문제로 20대는 정치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투표 안하게 되고 의원들도 투표율이 낮은 20대를 신경쓰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고 말했다. 그는 "20대의 문제는 20대가 스스로 풀

어나야 한다"며 "투표를 통해 자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정치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에서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공약 11가지를 뽑아 학생들이 원하는 공약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각 정당에 11가지의 공약을 지방선거 출마 시에 이뤄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추성호 대표는 "11가지 공약을 보낸 결과 각 정당에서 답변이 왔다"며 "한나라당의 경우 아직 답변이 없고, 민주당은 힘들지만 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경우 해당 공약을 준비 중이라고 말하면 이번 선거에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대답했다.

서희부

## 학내에 불어 온 정치 참여의 목소리, 사회과학대 학생회

### "인식은 좋지만 실제 참여가 적어 아쉬워"

한동안 정치적 행동이 멈췄던 우리대학에도 희망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 중심엔 14대 사회과학대 학생회 '동심'이 있다. 이들은 지난 달 30일 정치참여선언대회에 참가했고 6·2 지방선거를 위한 부재자 투표소를 유치하기 위해 활동하기도 했다. 이런 활동을 이끌고 있는 박미성(행정 3)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은 "홍보부측과 부재자투표를 신청받는 곳의 담당자들 부재가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80여명의 신청자 중 서울권을 제외한 지방권 학생들은 27~28일에 사회과학대 학생회실로 와서 투표용지를 받아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달 중순부터 학생회 학생들과 함께 '대학생 정치참여 선언대회'에 참가하는 자보를 진리관에 붙이기 시작했다. 이 대회는 5월 1일 메이데이 120주년 행사의 전야제로 전국 각지의 대학생들이

몰려들었다. 그는 "우리학교에서는 약 20여명의 소수의 학생들만 참여했지만 다른 대학생들과 함께 피켓과 깃발을 들고 행진에 참가했다"며 그 날을 회상했다.

이러한 행사를 하며 뿌듯함을 느낄 때도 많다. 그는 "부재자투표 자보를 붙인지 얼마 되지 않아 잠깐 땀에 한 예술대 학생이 '부재자투표를 신청하려 했는데 이렇게 빨리 때문 어떡하냐'며 찾아온 적도 있다.하지만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은 너무 적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음에는 강의선전이나 거리홍보 등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 4.19 필박집 행사에 참여한 사회과학대의 한 학생

실제로도 그는 개인적으로 집회 등의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인 20대다. 하지만 집회가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회의적인 시각에 부딪히기도 한다. 일명 '집회가 밥 먹여주냐'는 입장이다. 이런 시각에 대해 그는 "집회는 정부에 일종의 '경고' 역할을 한다. 독재사회에서 6·29선언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경고'가 점점 더 많은 계층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도 회의적인 시각 대신 목격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이러한 집회에 참여하게 되면 자신만의 역사관이 생기고, 여러 경험도 쌓아왔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된다"며 집회의 교육적 성격도 언급했다.

그는 이러한 정치참여의 첫걸음에 주위 선배들의 영향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나 역시 친한 선배들의 권유에 의해 처음 집회를 가게 되었다"며 "처음엔 두렵지 몇 번 하다 보면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고 말한다. 이번 대회에 함께 한 후배들도 대부분 처음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는 "다행히 호기심을 갖고 사회의 다양한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쁘다"고 고백했다. 그 역시 자신에게 모르면 것을 알게 해 준 선배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성이 기자 sangmi@hansung.ac.kr

## 6월 2일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날입니다

투표한 사람만이 정책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더 나아가 나라를 위해 투표하세요

※ 투표시간 : 오전 6시~오후 6시

※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오타쿠문화, '어느 별에서 왔니?'

## 정서 교류와 소통이있으면 삶의 활력소로 작용

'전차남' (오타쿠 내용을 다룬 일본드라마의 방은 수많은 미소녀 브로마이드와 피규어로 가득 차있다. 전차남이란 전철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취객으로부터 젊은 여성을 구해낸 한 청년으로 이 드라마에서는 그의 사랑이야기를 다룬다.

그의 하루는 오타쿠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시작한다. 메이트 카페에서 수다를 떠한 후, 저녁에는 미소녀 이벤트에 참석한다. 하루의 마무리는 컴퓨터 게시판에서 하루 일과를 공유하는 것이다. 컴퓨터에 능하고 MP3로 음악을 듣고 게임과 애니메이션을 좋아해 수줍게 열성적이다. 우리는 이들을 흔히 오타쿠라고 부른다. 오타쿠는 특정한 분야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는 마니아로, 주로 애니메이션, 게임, 만화, 피규어(프라모델의 일종) 그 밖의 서로 깊이 연관된 하위문화에 열중하는 사람들의 총칭으로 정의된다.

오타쿠 문화는 1948년 2차 대전 후 일본에서 등장한 집단주의로 인해 개성을 드러내면 이치에 맞지 않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자신만의 욕구를 드러내지 못하고 내면 깊은 곳에서 발산하려는 데서 그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피터팬처럼 성년으로의 이행을 조금이라도 늦추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오타쿠, 가상세계의 아이들' 에티엔 바빌 지음, 문화과학사에서는 "이들은 유년기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으며 이 유년기를 보존하려 자신을 안의 어린이를 더 잘 보존하기 위해 이러한 유희 속에 빠져든다"고 서술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한다. 이런 이유로 세간에서는 오타쿠들의 전문성을 평가해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빌게이츠나 스티븐잡스도 어린 시절 광적인 물입을 보였다고 한다. 현재 프로젝트에도 예외는 아니다. 자신만의 세계에서의 물입과 끝없는 정보의 습득이 콘텐츠로 전환

이러한 마니아뿐만 아니라 연예인의 마니아층도 있다. 대학생 김모양(22세)은 아침에 일어나 일본아이돌 팬 카페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물론 그의 바탕화면에는 가수의 사진으로 가득하고, 그의 집에는 일본의 친구들이 보내준 잡지, 사진으로 가득하다. 단순한 팬을 넘어

을 보면 큰 힘이 된다. 또 이들이 훌륭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새 동경하게 되었다"며 "이들의 노래를 듣다보면 상처가 치유되는 느낌이라"며 "이들에 대해 정보가 쌓이고 많은 것을 알아가는 데 즐거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러한 마니아층에 대해 학생생활상담소 홍성미 상담사는 "마니아층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임하고 전문적인 식견과 자기 나름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팬들과의 교류나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할 때 실아가는데 큰 활력소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서교류가 원활하지 않고 소통의 부재에 이르게 되면 건전성이 줄어들게 되고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어 마니아의 경계를 넘어서 집착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 오타쿠, 열정과 집착의 경계

게 된 것이다. 최근 mN 방송의 '화성인 바이러스'에서의 오타쿠들이 적지 않은 풍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 '만화 캐릭터와 결혼 준비 중인 화성인' 편의 후폭풍이 거세다. 화성인으로 등장한 이 남자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를 좋아하다 못해 현실 속에서도 그녀와 연애 관계를 만들고 있다.

그들의 일상생활까지 동화되고 싶어하는 그는 이들의 생방송을 홈페이지에서 챙겨보고, 중간 중간에는 콘서트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하고, 일본 웹사이트에서 이들의 미니홈피를 찾아다닌다. 그의 대화주제는 연예인들의 이야기이며 도쿄에 가서 그들의 마추침을 꿈꾼다. 그는 "대인관계 문제로 많이 힘들고 지쳤을 때 이들의 노래를 듣고 방송

## "스피커 너머로 흘러나오는 소소한 일상"

### 라디오의 매력은 무한하다

라디오를 즐겨 듣는다는 이진수(한국어문3) 학생의 아침은 상큼한 DJ의 목소리와 함께 시작한다. 청소년 시절 라디오 조립이 취미였다는 이진수 학생은 청년이 되어서도 라디오의 매력에 빠져 있다. 그는 "집에서 스피커를 틀어놓고 듣는 데 아침과 오후에 주로 듣고 있다"며 "아침방송으로는 뉴스나 시사 관련된 것을 듣지만 오후에 하는 방송은 재미있게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등학교 시절에는 자율학습을 하면서 '별이 빛나는 밤에'를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고 입대 전에는 여자친구를 위한 사연과 노래를 신청해 당첨된 경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아날로그적 감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라디오는 청취자들에게 애뜻한 향수와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다.

라디오는 종년층들에게는 손으로 쓴 엽서를 보내 라디오 앞에서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며 가슴 졸이던 추억으로 남아있고, 요즘 젊

은 이들에게는 문자 참여 혹은 전화 연결을 하기 위해 핸드폰을 들고 기다리던 즐거운 두근거림으로 기억되고 있다. 라디오는 누군가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매체다. 스피커 너머로 흘러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에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한다. 감동적인 사연에서부터 기발한 상상력으로 나온 아이디어, 웃음이



를 들으면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며 "청취자와 DJ가 소통한다는 점이 매력으로 다가온다"고 말한다. 그 예로 케이블에서 방영했던 '컬투쇼'는 단순한 라디오

에서 출발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TV를 통해 유쾌한 웃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매력을 뽑내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은 최근 들어 유독 웃음을 집착하며 재미도 잃어가고 있는 예능프로그램에 신선한 자극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다. 인터넷 방송국인 '라디오 21'의 강우중 국장은 "진행자와 청취자간의 실시간 채팅이 가능한 인터넷라디오는 공감대 형성을 하며 사회적인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공중파 라디오와는 다른 인터넷라디오에 대해 소개했다. 따뜻한 아날로그적 감성을 담은 라디오가 주는 전파는 우리 몸 속에 필요한 영양분이다. 마음이 허전하다면 밝은 시간에도 항상 누군가의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는 라디오를 들으며 마음의 허기를 달래보는 것은 어떨까?"

이예진 기자 odory11@hansung.ac.kr

이경대 기자



필 벽의 「대지」

## 땅에서 태어났고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



노벨 문학상과 풀리처상을 받은 세계적인 작가 필 벽은 미국인이다. 하지만, 성장기를 중국에서 보낸 탓인지 주인공이 중국인이고

중국을 배경으로 한 이 소설은 읽는데 전혀 어려움이 묻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동양적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다. 1930년대에 쓰인 이 소설은 1편 '대지', 2편 '아들들', 3편 '분열한 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1편인 대지를 통해서 작가의 생각을 알아보자.

청 말기가 배경인 이 소설에서 커다란 역사적 사건은 등장하지 않는다. 오직 왕릉이라는 시골의 가난한 농부가 겪는 이야기가 전부이다. 현대 대부분의 사람이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살아가는 오늘날 이 가난한 농부 왕릉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줄 수 있을까?

왕릉은 아들들이 땅을 팔기 위해 의논하는 것을 보며 이런 말을 한다. "땅을 팔기 시작하면 집안은 마지막이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다시 땅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땅을 갖고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 땅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은 주인공에게 땅은 단지 농사를 짓고 밤 벌어 먹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말이

다. 아마 그곳은 그들의 삶의 터전이자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곳이며 죽는다면 묻혀 편안 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일 것이다.

처음에는 가난했지만 땅에서 일을 하며 땅을 키우고 예뻐진 않지만 일 잘하고 성실한 부인과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던 그가 부자가 되고 농사일을 그만 두면서 땅에서 멀어진 후에는 철을 만들고 공간을 더욱 크게 만드는 풍족한 상황에서 점점 불행해져 가는 모습을 보면 그가 말한 것처럼 땅이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만만하게 볼 수 없다.

물론 땅은 항상 주인공에게 좋은 터전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가뭄으로 고향을 떠나게 만들었고 오랜 굶주림과 가난으로 딸을 병들게 하였다. 하지만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그곳에 대지가 있기 때문이다. 대지라는 것은 존재 자체로 주인공에게는 삶의 이유가 되었던 것은 아닐까? 나중에 부인이 죽고 황 부자 덕으로 이사를 간 왕릉은 혼자 고독한 세월을 보내지만 때는 이

미 농사를 짓고 싶어도 할 수 없었었을 때다. 왕릉은 자신과 같은 실수를 아들들이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지를 팔지 말 것을 강요했던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들들은 그저 걸으면만 수긍하고 서로를 바라보며 비웃음을 뿐이다.

필벽은 어쩌서 파란만장 하지만 어찌 보면 평범한 이 농부를 주인공으로 삼은 것일까?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농부라는 그 당시 보편적인 직업을 통해 더 많은 공감을 얻고 한편으로는 서양에 중국이라는 나라의 소소한 일상과 생활을 알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왕릉이라는 농부를 통해 동양에서의 땅에 대한 가치가 그저 농사를 짓는 곳이 아닌 삶의 희노애락이 펼쳐지는 공간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물론 필 벽의 생각을 더욱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들들'과 '분열한 집'을 읽어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정대 기자 press@hansung.ac.kr



영화 읽어주는 여자

### 감성만 남은 사랑의 댄스

까미유 끌로델 <왈츠>



까미유 끌로델(1864-1948), 조각가로서보다 어쩌면 로망의 연인으로 더 많이 알려진 그녀는 자신의 끼와 재능, 그리고 남다른 열정으로 인해 불행한 일생을 살았던 비운의 여인이다. 오늘날 조각계에서 로망의 명성에 가려 묻혀 있던 그녀의 작품세계를 재조명하는 작업이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예술에 대한 남다른 소질을 보였고, 그녀가 추구하는 목표는 뚜렷했다. 로망의 작업실에 제자로 들어갔을 때 그녀의 나이는 19살이었으며, 로망은 43살이었다. 당시 로망은 젊은 시절부터 그 옆을 지켰던 부인 로즈 마리라는 여인이 있었지만, 이 젊고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인 까미유 끌로델에게 로망은 깊이 빠져들게 된다.

로망은 까미유의 작품에서 자신의 조각과의 내적인 유사성을 느꼈다. 그녀가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얼마 되지 않아 로망은 까미유에게 그의 작업실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 했다. 함께 작업하던 시절 끌로델은 로망 작업의 여인 모델이 되기도 하고, 몇몇 여인들의 조각에 손과 발을 제작하기도 했다. 점차로 끌로델은 로망에게서 없어서는 안 될 공동작업자가 되고, 이 시기 그들의 창작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점이 많았다. 끌로델과 로망 사이에는 스승과 제자 사이의 미묘한 갈등, 예술가로서의 경쟁 그리고 작품에 대한 질투심 등이 작용하면서 미묘하고 간단치 않은 많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예술적인 천재성은 개인의 내면에서 나오며 타고난 재능에 비례하여 인정받

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끌로델은 때가 되면 자신의 재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리라고 확신했고 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를 로망의 제자 이상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고, 로망은 완전히 떠난 이후로도 크게 빛을 보지 못하였다. 반면, 로망의 명성은 날로 드높아만 갔다. 끌로델은 로망이 자신의 영감을 도용했다고까지 생각하며 그에 대한 감박적인 증오는 로망이 죽은 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졌다. 결국 그녀는 1912년 3월, 빌르에브라르에 있는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그곳에서 30년을 더 버티다가 숨을 거둔다.

1892년 제작된 그녀의 가장 유명한 작품 <왈츠>는 그녀의 모든 예술의 특성이 표출되는 작품이다. 유연하게 물결치는 듯한 흐름을 표현한 이 작품은 여류조각가로서 끌로델의 섬세한 감수성이 진하게 물어있는 걸작이다. 두 남녀는 완전히 닿아 있는 듯하지만, 자세히 보면 아주 미세한 간격으로 떨어져 있어 그 긴장감이 고조된다. 또한 한쪽으로 흘러 있는 무게 중심은 그녀가 로망과의 관계에 있어 얼마나 불안정한 정신 상태를 보였는지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로망과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계속 그의 습격을 기억하는 끌로델은 사랑이 떠났을 때 얼굴과 표정을 잃었고, 이성마저 잃었다. 감성만이 살아 여전히 그의 손기를 좇아 음악에 맞춰 왈츠를 추고 있는 것 같다. 파국이 얼굴을 잃어버린 그녀는 어쩌면 사랑만 품고 싶었을 지도 모른다. 그것이 기억이고 지난 것이 불회합지라도 말이다.

조주현 (서울시립미술관 큐레이터)



사진이야기



아간 조명과 잘 어우러진 흥인지문입니다. 승려들과 쌍벽을 이루는 도심 속의 성문인데 남대문이 무너지고 난 후 외롭게 서있는 느낌이 드네요. 어서 빨리 남대문이 복원되길 바랍니다.

목진수(산공 2)